

## 제13회 종학연구소 학술대회

#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 유아·청소년·대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21년 11월 11일(목) 13:30~17:00
- 장 소 : 동국대학교 혜화관 3층 미래융합세미나실
- 주 최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 제13회 종학연구소 학술대회

##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 유아 · 청소년 · 대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

\* 진행사회: 정영희(종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시 간	식순 및 발표 주제	
13:30~13:40	<b>삼귀의/반야심경</b> <b>개회사</b> * 정도스님(종학연구소장)	
13:40~14:25 (45분)	<b>[제1주제]</b>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 발표: 김형중(전 동대부여교 교장) * 논평: 이학주(동대부여교 교법사)	사회: हे주스님 (동국대 교수/경주)
14:25~15:10 (45분)	<b>[제2주제]</b>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발표: 명진스님(안현정, 동국대 겸임교수/경주) * 논평: 임영숙(전남대 교육학박사, 전 건국유치원장)	
15:10~15:20	<b>휴 식</b>	
15:20~16:05 (45분)	<b>[제3주제]</b> 불교종립대학 교양교과를 통한 대학생 포교 방안 연구 -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 발표: 이석환(동국대 학술연구교수) · 김은영(동국대 연구초빙교수) * 논평: 정운스님(신명희, 전 불학연구소장)	사회: 강은애 (서울대 학술연구교수)
16:05~16:50 (45분)	<b>[제4주제]</b> 불교종립대학의 자아와 명상 교양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핵심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 발표: 휴담스님(안효기, 동국대 강사) · 원상스님(김근행, 동국대 강사) * 논평: 진관스님(전효진, 동국대 강사)	
16:50~17:00	<b>폐회사</b> * 정도스님(종학연구소장) <b>사홍서원</b>	

※ 학술대회 참가 청중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6713-5141 / jonghak@dongguk.edu)





**제1주제 :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발표 : 김형중\_전 동대부여고 교장 ..... 7

    논평 : 이학주\_동국대부속여고 교편사 ..... 32

**제2주제 :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명진스님(안현정)\_동국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35

    논평 : 임영숙\_전남대 교육학 박사, 전 건국유치원장 ..... 62

**제3주제 : 불교종립대학 교양교과를 통한 대학생 포교 방안 연구**

    -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석환\_동국대 종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은영\_동국대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65

    논평 : 정운스님(신명희)\_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88

**제4주제 : 불교종립대학의 ‘자아와 명상’ 교양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 핵심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 : 휴담스님(안효기)\_동국대 강사· 원상스님(김근행)\_동국대 강사 ..... 93

    논평 : 진관스님(전효진)\_동국대학교 강사 ..... 118



#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김형중

전 동대부여고 교장

1. 머리말
2.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 1)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의미
  - 2) 청소년 인성교육의 8대덕목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3. 사찰에서 청소년의 포교 활성화 방안
4.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
  - 1) 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 2) 사찰에서 청소년 포교방안과 인성교육
5. 맺는말

## 1. 머리말

### - 청소년의 포교의 중요성과 본 논문의 방향과 목적-

청소년은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다. 미래의 불교교단을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동량(棟樑)이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와 전도이다. 교단에 신도가 없으면 그 종교는 생명이 끝이 난다. 국가와 가정의 흥망이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다. 인재 양성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 회사, 가정, 종교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사업이다.

포교가 없으면 불교교단이 유지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한국불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포교전법이다. 불교의 모든 역량을 포교에 투입해야 이 땅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고, 사회를 향도할 수 있다.

이웃종교의 목표와 전략이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요, 둘째도 셋째도 선교인데, 우리 불교는 전법 포교에 노력하지 않는다. 특히나 청소년 포교에 미진하다.

부처님은 『불본행집경』에서 다음과 같이 전법선언을 하였다.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치에 맞는 말로써 알아들을 수 있는 설법을 하라.”고 하셨다. 청소년의 교화방법은 이치에 맞는 말로써 쉽고 재미있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관심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과 소통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주는 일이 불교교단이 청소년 교회와 포교를 위해서 수행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석가모니가 청소년시기에 인간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문제로 고민하는 시기였듯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이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자기도취, 우울, 열등감, 수치심,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몰려있다. 그러면서도 자아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이다. 대학입시의 중압감과 각종 청소년 문제로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 불교의 치유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는 올바른 인성 형성과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면 비뚤어진 인간이 되어 사회의 문제아가 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의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과수업을 통한 불교적 인성교육 방안과 사찰에서 청소년 포교방법과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 포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주제는 학교에서 윤리도덕 인성교육의 과제이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불교 신행교육의 내용도



된다. 또한 불교교단이나 사찰에서 청소년을 교화하여 올바른 불자를 만드는 불교교육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본인은 37년 동안 불교종립 중고등학교에서 교법사, 교감, 교장을 하면서 종교(불교), 윤리 도덕, 철학 교과목을 지도하면서 불교수업과 불교교리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업교재를 개발했다. 학생들은 항상 대학입시의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사, 국어, 사회, 윤리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수업교안을 작성하여 지도하니 학생들이 불교수업과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교재를 연구한 성과를 책으로 출판한 것이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sup>1)</sup>이다. 이 책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문화재와 한국의 역사를 이끈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었다. 1984년 『불교사상』 9월호에 발표한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sup>2)</sup> 그리고 2021년 『시로 읽는 불교』<sup>3)</sup>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시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평론한 것이다. 사회, 국민윤리, 도덕, 국사, 국어, 음악 등 교과서를 연구하여 불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발표해서 시정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통한 범회 활성화 방안」을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연구소 주체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2015년, 대한 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을 계발 심의하였다.

본고(本稿)의 2장에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을 통한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사찰에서의 청소년의 포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본고의 핵심과제인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포교 방안이다.

5장에서는 맺는말로서 본 논문을 총괄하고, 급격하게 청소년 문화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의 호기심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1) 김형중·김문수,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 운주사, 2008.

2) 김형중,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 『불교사상』 1984년 9월호, 1984.

3) 김형중, 시로 읽는 불교, 운주사, 2021.

## 2.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 1)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의미

우리는 세계 최초로 2015년 7월 21일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인성교육을 위한 5대 핵심역량과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을 제시하였다. 5대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고, 인성교육 8대 핵심덕목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효도, 예절이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의도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근거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보다는 ‘역량 중심’의 인성교육을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량중심의 인성교육이란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적, 정의적(情意的),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다.<sup>4)</sup>

### 2) 청소년 인성교육의 8대덕목과 불교수행의 실천덕목

인성이란 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심성을 뜻한다. 인격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행위의 품격을 뜻한다. 도덕 윤리적인 실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인격교육은 거의 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종교적 인성교육은 일반 도덕적 인성교육과는 다르게 ‘성스러움’, ‘초월성’, ‘무한한 자비심’, ‘무욕(無欲)의 청정심’ 등 이상적인 종교적 체험에 의한 인성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기독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영성교육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신령스러운 품성과 성질을 뜻한다.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다.

물론 불교에서도 인성은 불성을 뜻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참되고 착한 여

4) 김영래,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17, 57쪽.

래성품(如來性稟)이다. 불교의 인성교육은 불성을 계발하여 이상적인 부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교육이다. 불교의 교육이나 포교의 목표와 일치한다. 영성과 불성이 다른 점은 불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이고,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착한 마음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자의 실천 계율인 오계(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실천덕목인 팔정도(定見, 正語, 正思惟, 正業, 正命, 正念, 正定),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보살의 한량없는 네 가지 자비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무량심(慈無量心, 悲無量心, 喜無量心, 捨無量心), 불자로써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강조한 사은사상(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왕의 은혜, 시주의 은혜) 등의 사상과 정신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8대덕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현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 윤리적 측면이 구체적 덕목으로 제시된 점이 차이가 있다.

예절와 효도, 정직, 책임은 개인의 구체적 윤리적 덕목을 제시한 것이고, 존중과 배려, 소통, 협동심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윤리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불교의 덕목을 바라본다면 오계와 팔정도는 개인 수행덕목이고,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은 대승보살의 개인 수행덕목과 중생구제, 사회봉사의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이다.

불교의 사은사상은 부모의 은혜에 효도하고 나라의 은혜에 충성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웃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고 봉사하는 실천 덕목이다. 사무량심은 한량없는 중생과 이웃 시민을 향하여 배려와 존중, 희생 봉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팔정도에는 개인의 수행덕목인 올바른 정직과 정의가 나타나 있고, 불교의 계율정신에는 책임 의식과 자기 조절 및 준법, 책임의식이 나타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다.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협동심, 소통 등이 나타나 있고, 선정바라밀에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조절, 감성정화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지혜바라밀에는 지혜와 용기, 소통, 협동과 화합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sup>5)</sup>

### 3. 사찰에서 청소년의 포교 방법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에서 찾을 수 있다. 박선영 교수(1981)는 불

5) 김형중,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 자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8, 60쪽.

교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지혜를 갖추고 자비로운 자주인’과 ‘밝고 따뜻한 주체적 인간’으로 정의하였다.

불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요소와 수행방법은 삼학(戒律, 禪定, 智慧), 오계와 팔정도, 육바라밀, 한량없는 네 가지 자비심인 사무량심,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사은(四恩)사상, 깨달음, 회심(回心), 발보리심 등의 실천덕목이 있다.

불교의 이상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수행 방법은 한 마디로 삼학과 육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통해 삼독심을 제거하면 부처와 보살과 같은 인성을 형성하여 궁극으로 성불하는 완성된 인간이 된다.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사찰은 수행과 포교의 센터요, 불자들의 종교적 삶의 문화공동체 공간이다.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종교지도자이기에 설법자, 상담자, 사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사찰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포교 방법들을 필자 나름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회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②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③ 불교 상담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④ 경전 읽기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⑤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⑥ 염불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⑦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⑧ 선무도(禪武道), 등산, 요가 등 체력 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⑨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⑩ 다도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⑪ 효도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⑫ 인문학 강의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⑬ 호국불교 사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⑭ 108배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⑮ 발우공양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등이 있다.<sup>6)</sup>

## 4. 학교와 사찰에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안

### 1) 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방법

2016년 1월 발표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은 연차별 인성교육 시행계획보다

6) 김형중,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 자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8, 66쪽.

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다. 학교·가정·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점에서는 기존의 계획과는 유사하지만 종합계획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공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핵심덕목과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으로 학교, 관공서, 사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서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교화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불교교단에서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와 사찰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포교방안이다.

고등학교 윤리·도덕교과서, 국어교과서, 국사교과서, 예체능 교과서, 한문교과서, 진로·상담·직업교과서, 환경교과서 등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새롭게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불교 포교를 목표로 ‘불교의 교육’ 즉, 종파수업을 한다면 교육법에 위반이 되지만, 불교의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불교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

### (1) 윤리·도덕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고등학교 윤리·도덕교과는 전체가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윤리나 시민생활 윤리의 이론이나 학설이 서구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의 전통윤리나 사상이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특히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불교윤리의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필자가 37년 전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과서를 일부 수정한 일이 있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기술이 잘못된 부분과 불교에 대한 서술이 편향적인 면을 지적하였다. 종교의 정통과 이단을 설명하면서 불교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데 바닷다의 비유를 예화로 들면서, 부처님에 대한 데바닷다의 반역 행위를 장장 8줄이나 할애하여 설명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외경(畏敬)하는 종교적 신앙에 거스리는 행위를 이단이라 한다.(82-83p)”고 기술하였다.

필자는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에서 초중고등학교 바른생활, 도덕, 윤리, 역사, 철학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여 잘못된 내용과 기술, 종교적

편향 내용을 지적하여 제8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sup>7)</sup>

중고등학교 윤리·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편집하여 교육한다면 인성교육, 입시교육, 청소년 포교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국어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불교시, 불교소설, 불교수필, 향가, 불교가사 등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 향가, 고려가사, 조선의 시조 등에 불교 사상이 나타나 있다. 한글로 노래한 근대시와 현대시에도 불교의 내용을 다룬 시가 무수히 많이 있다.

다음은 2001년에 필자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교육부)와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문학 작품을 조사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교육부, 2001년 현행),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 문학 작품(표1)<sup>8)</sup>

국어교과서 (교육부)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한용운), 불국사기행(현진건), 구운몽(김만중), 안민가(충답사)
문학교과서 ① 지학사 [ I ] (박갑수·김진영·이승원 저)	님의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② 지학사 [ II ] (김봉균·최혜실 저)	님의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원정(타고르), 만복사저포기(김시습), 등신불(김동리)
③ 대한교과서	님의 침묵(한용운), 여승(백석), 동승(함세덕), 단군신화(일연), 구운몽(김만중)
④ 민문고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무소유(법정)
⑤ 학문사	단군신화(일연), 만복사저포기(김시습), 구운몽(김만중), 무소유(법정), 월인천강지곡(세종), 바닷가에서(타고르)
⑥ 선영사	알 수 없어요(한용운), 제망매가(월명사), 찬기파랑가(충답사), 만복사저포기(김시습), 월인천강지곡(세종), 조신의 꿈(일연)
⑦ 금성교과서 [ I ] (박경진·김태식·송백천·양왕용 저)	당신을 보았습니다(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7) 김형중,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 『교육연구』 제42집, 성신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79-95쪽.

8) 김형중, 「문학작품을 통한 범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청소년문화연구소 주관 2001년 10월 세미나, 2001.

⑧ 금성교과서 [Ⅱ] (박동규·서대석·송백현·김태식 저)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제망매가(월명사), 월인천강지곡(세종)
⑨ 천재교육	알 수 없어요(한용운), 단군신화(일연), 찬기파랑가(충답사), 조신의 꿈(일연), 구운몽(김만중)
⑩ 노벨문화사	님의 침묵(한용운), 조신의 꿈(일연), 구운몽(김만중), 제망매가(월명사)
⑪ 대일도서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만복사저포기(김시습), 제망매가(월명사), 구운몽(김만중)
⑫ 두산동아	알 수 없어요(한용운), 님의 침묵(한용운), 단군신화(일연), 동승(함세덕), 궁핍한 시대의 시인[한용운](김우창), 현진건의무영담(신동욱), 찬기파랑가(충답사), 국화 앞에서(서정주),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제망매가(월명사)
⑬ 한샘출판	님의 침묵(한용운), 찬기파랑가(충답사), 조신의 꿈(일연), 함께 있고 싶어서(법정)

교과서에 나타난 문학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이 잘 나타난 불교시를 뽑아서 해설하고 평론한 책이 『시로 읽는 불교』이다. 이 책을 편찬하고 저술한 목적을 필자가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는 필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김광섭의 『저녁에』에 나오는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조오현의 『파도』에 나오는 “천경(千經) 만론(萬論)이 다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김춘수의 『꽃』에 나오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천양희의 『운명』에 나오는 “온몸이 가시로 된 나무가 있다 그늘에서만 사는 나무가 있다 햇빛을 받으면 죽는 나무가 있다” 등의 시구는 한없는 눈물을 흐르게 했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한용운, 서정주, 백석, 박목월, 윤동주, 조지훈 등등 기라성 같은 근현대 한국시단을 이끌었던 시인의 명시와 불교시를 모아서 시 세계를 해설하는 작업을 함께 시도하였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명품시를 통해 머리를 쉬게 하고, 대학수능시험에 도움도 되게 하는 일석이조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다.<sup>9)</sup>

### (3) 국사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우리나라 역사는 불교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사교육은 불교교육과 밀접한 관

9) 김형중, 『시로 읽는 불교』, 민족사, 2021, 1쪽.

계가 있고, 학생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국난 극복의 과정에서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나 불교의 호국정신과 높은 철학적 사상과 사유는 문화민족으로서 뛰어난 정신적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 국가문화재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필자는 2008년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의 책을 출간하여,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 문화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재의 뛰어난 예술성과 거기에 담긴 재미나는 일화와 불교사상을 살펴보았다.

중고등학생에게 국사교육을 할 때 불교역사 이야기와 고승들의 일화와 깊은 철학적 사상을 참고 교재로 편찬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입시공부, 불교공부, 인성교육 등 다각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불교가 국가가 외침을 받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불교는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받아 승군장 김인후(金麟厚)가 처인성(處仁城; 현재의 용인)에서 몽고 장수를 화살을 쏘아 죽임으로써 세계 최강의 몽고군을 물리쳤고, 임진왜란 때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왜구를 물리쳤다. 병자호란 때는 승려들이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전투에 참전하였다. 호국불교는 한국불교의 특성이다.

#### (4) 사회교과와 예술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내가 사는 우리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집단과 생활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법률, 국제문제, 환경 등에 대하여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나 동서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불교와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에 대한 종교 사회문제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교과는 인성교육과 종교의 올바른 교육에서 중요하다. 2015년 조계종사회연구소와 불광연구원이 개최한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의 종합토론에서 김형중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 기술에서 종교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미래엔)』199쪽의 ‘일상생활 속의 종교 갈등’에서는 ○○시에서 불교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는 시 예산으로 유명 불교 사찰에 국제 불교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의 전통문화 및 불교문



화를 계승·전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종교 단체들은 시 예산으로 불교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다른 종교 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sup>10)</sup>

포교원 인성교육 계발·인증위원회에서 2016년 인성프로그램으로 심의한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sup>11)</sup>는 명상과 예술놀이를 통한 교사 인성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사찰에서는 수행과 강의, 기도, 법회 등의 순수 종교적 체험프로그램 이외에도 공예, 도자기, 서예, 한지 만들기, 천연염색, 서각, 전각, 불화그리기, 불교문화재 보호활동, 연꽃등 만들기, 국악 판소리, 회심곡 등의 풍부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 (5) 한문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책은 불교경전이다. 삼국시대에 중국의 유학승에 의해서 중국의 선진문물과 함께 전래되었다. 한자를 공부한 승려와 사찰은 민족의 선구자로서 국민을 가르치는 스승님(스님)이 되었고, 사찰은 교육을 시키는 장소인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왕의 스승이나 국가의 스승인 왕사나 국사가 승려 가운데서 배출되었다.

물론 현행 학교에서 한문교과의 교과서의 내용은 유교경전의 내용이 중심되어 편찬되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한문교육의 전통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사찰에서의 불교강원 교육이다. 우리나라 불교경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한역경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경전이 한문용어가 대부분이다. 불교교리나 경전을 이해하려면 한문 공부는 필수적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지배하면서 문교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한글전용이 단행되면서 학교교육과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한자가 배격되게 되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은 불교교단과 전통사상을 유지 발전하려는 집단이다. 한 순간에 나라의 언어정책이 한자에서 한글과 영어로 전환된 것이다.

작금에 와서 나라의 석학들이 한자와 한글의 겸용을 주장하고 나왔다. 이유는 국어사전의 70%가 한자어이고, 특히 학술용어가 대부분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책을

10) 김형중,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의 토론문」,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 조계종 포교원, 2015.

11)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2016년 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 포교원, 2016.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독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국가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자교과서의 내용에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유익한 내용을 발췌하여 한자학습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한다면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가 있다. 사찰에서도 신도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천자문』<sup>12)</sup>, 『불교 한자입문』<sup>13)</sup>, 『문수동자 백자문(기초한자 첫걸음)』<sup>14)</sup>,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sup>15)</sup>, 『왕초보 한문박사가 되다』<sup>16)</sup>, 『한글세대를 위한 부수 그림한자 50』<sup>17)</sup> 등을 가르친다면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에 유익한 사찰의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금강스님이 해남 미황사에서 동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 (6) 상담·진로·직업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사찰에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방해요소가 되는 학교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왕따, 술 담배 마약 등 약물중독, 핸드폰 중독, 자살, 가정 문제, 외모와 건강 문제, 이성 문제, 학교 성적, 직업 선택, 입시 진학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공통적인 문제로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사찰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장애가 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과 학업 성적과 대학 진학의 상담까지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각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

거대한 불교교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청소년시기에 불교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사찰이나 불교기관에서 일하는 사찰행정관리사, 명상지도사, 상담교사, 요가지도사, 사찰요리사, 사찰행사기획사, 포교사 등에 대한 소개나 이해가 불교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진로를 제시해주는 진로와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능력, 개성, 적성, 환경 등을 이해하고 중학교 때부터 직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

---

12) 덕진, 『불교 천자문』, 우리출판사, 1995.

13) 경완, 『불교 한자입문』, 조계종출판사, 2018.

14) 김형중, 『문수동자 백자문』, 2022(출간 예정).

15) 김형중,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 밀알출판사, 1992.

16) 김형중 『왕초보 한문박사가 되다』, 민족사, 2012.

17) 김형중, 『한글세대를 위한 부수 그림한자 5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한자교재 간행, 2017.

## (7) 환경교육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과 불교교화

학교교과에 자유선택교과로 환경(생태계교육)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나라의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정보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 환경오염을 막는 실천교육이 중요하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 윤리와 생명존중 사상이 불교의 환경사상이다.

발우공양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의 양을 그릇(발우)에 담아서 100% 모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식사법이다.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줄일 수 있고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청소년은 사찰에서 발우공양을 함으로써 식사에 대한 거룩함을 인식하고, 발우공양의 과정과 의미를 통해 한 끼의 식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인연이 함께 함을 깨닫게 된다. 농부에 대한 고마움과 밥을 짓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 등을 느끼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식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화합, 협동, 배려, 소통 등을 깨닫는다.

본인이 송월주 총무원장과 함께 1992년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현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전국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5년 동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명륜당, 문묘)에서 ‘전국 청소년환경·통일청소년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다. 10개 장관상을 시상하고, 환경교육과 문화재 애호활동으로 봉사활동시간을 부여해 왔다. 국내 최초의 불교환경도서인『불교와 환경보존』(1998년)<sup>18)</sup>을 편찬 간행하였다.

불교의 사찰음식(精進料理)는 채식 위주의 웰빙식품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찰요리를 교육시키는 것은 요리사를 장래 희망으로 꿈꾸는 청소년에게 좋은 정보와 관심을 갖게 하는 직업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 2) 사찰에서 청소년 포교방안과 인성교육

불교수행의 요체는 계율·선정·지혜 즉, 삼학(三學)이다. 사찰에서나 학교, 가정에서도 삼학수행을 통해서 불교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삼학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을 인성교육과 포교를 해야 한다.

먼저 불교의 포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길이 있다. 첫째, 설법, 즉 법문이다. 부처님이 법문을

18)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편찬, 『불교와 환경보존』, 도서출판 아름다운세상, 1998.

행하신 후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소수 또는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 문서에 의한 방법은 교리와 신앙 해설 등을 인쇄매체 형식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언어만으로는 논리적 귀결을 얻기 힘들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히 기술해 줄 수 있는 인쇄물이 지닌 특징을 잘 활용한 것이다.

셋째, 영상매체에 의한 방법이란 다양한 첨단 통신매체를 충분히 활용하는 새로운 포교방법이다. 오늘날 뉴미디어시대에 적합하도록 방송, 영화, 비디오, 광고판, 컴퓨터, 통신 등을 사용하여 다량의 전달 내용을 광범위한 지역에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기에 급변하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가장 포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날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나타난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포교 방안인 불교방송국, 유선 케이블TV, 실물화상기, 멀티비전, 화상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포교방법과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포교 방안이다. 요즘 통계조사에 의하면 25%가 저녁식사 후 TV를 시청하고, 60% 이상이 각자 방에 들어가 유튜브를 본다고 한다.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대세이다.

### (1) 명상을 통한 인격교육

선(禪)은 인식의 주체가 되는 마음을 핵심으로 추구하는 수행법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유도한다. 선정을 통한 심성의 순화(정신건강)와 직관으로 얻어지는 통합적인 지혜는 대립과 분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을 제고(提高)시켜 학습효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선정(禪定)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법보단경』에는 “만일 갖가지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선정이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명상을 통하여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힘을 얻는다. 하루에 10분씩 3회만 명상을 해도 학습에 초능력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보여준 바 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효과가 증명되었고,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즐겨 했음에 주목하여 명상이 창의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들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사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종립학교 법당을 이용하여 청소년명상센터를 건립하여 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

속적으로 명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법교회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법사나 군법사 출신 법사가 명상전문가와 함께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에 도움이 된다.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에서 『2015 청소년인성프로그램』가운데 「청소년 활동명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명상프로그램으로 인증하였다.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명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명상은 우리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은 명상입니다. 활동명상은 놀이와 춤, 자연, 연극, 소리, 호흡, 창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통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명상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sup>19)</sup>

2018년 인성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중 명상을 통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은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sup>20)</sup>과 「신통방통 육방통」<sup>21)</sup>이 있다. 정순희가 2021년 박사학위논문으로 「초등학교 명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sup>22)</sup>을 발표하였다.

## (2) 염불을 통한 인성교육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수행법으로 불도 수행의 기초가 된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등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소리 내어 부르는 염불과 부처님의 상호(相好)나 그 공덕을 마음으로 관상(觀想)하는 염불이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수행으로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염불을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힘을 얻어 무한한 환희심과 자신감을 얻는다. 부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염불자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 정화된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염불과 함께 절 수행을 함께 하면 정서적 안정과 정신 집중에 효과가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19) 성부현, 「청소년 활동명상 프로그램」, 『2015 청소년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 2015, 100쪽.

20) 금해,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8.

21) 선업, 「신통방통 육방통」,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8.

22) 정순희, 「초등학교 명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3) 108배를 통한 인성교육

현재 재가불자에게 불교수행의 중심이 되는 두 축이 명상(선정)과 절(오체투지)이다. 2007년 조계종 포교원은 『절 수행 입문』(조계종출판사, 2007)을 간행하여 절 수행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해설하였다.

절은 예경의 뜻으로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며, 수행법이다. 예불은 부처님께 무수히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예경하는 의식이다.

절하는 수행법으로 108배와 1,080배, 삼천배, 일만배 등이 있다. 108배를 할 때는 108원을 하나 새기면서 하기도 하고, 108참회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불자가 부처님께 소원을 기도하거나 자신의 지난 과오를 참회할 때는 절을 하면서 한다. 절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기 때문에 종교적 회심(回心)의 계기가 된다.

자신의 전생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큰 종교적 체험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아만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성교육에 알맞는 수행법이다. 특히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절 수행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난 연구사례가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차정연은 절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대해 2016년에 박사학위논문<sup>23)</sup>을 발표하였다.

### (4) 다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청소년의 다도교육은 현재 학교 현장이나 사찰, 차문화재단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 증명되었다.

청소년의 다도교육은 다도를 통하여 바른 예절을 갖춘 행동을 습득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공경심, 배려심 등 기본적인 인격의 덕목을 차로서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차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차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여 올바른 정신을 지니도록 수련시켜준다.

청소년의 다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는 차를 마시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또 감정의 순화와 인간성의 회복이다. 차는 일종의 약초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도 효과가 있고, 학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각성의 효과와 집중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

23) 차정연, 「지적장애인을 위한 절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자립생활과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017년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에서 김의정의「다도예절인성지도사 준수법·사범과정」<sup>24)</sup>과 서화교(지운)의「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sup>25)</sup> 두 편의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김의정은『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도예절 인성교육 교과서』<sup>26)</sup>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다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 (5) 『부모은중경』 효도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효도는 인간의 모든 행위 기본이 되고, 인간의 인성과 덕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위는 인간의 악행 가운데 가장 나쁜 악행이라고 하였다.

불교의 사은(四恩)에는 부모의 은혜, 국왕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삼보(三寶)의 은혜가 있다. 특히『부모은중경』은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 불교의 효경(孝經)이다. 양주동 선생이 지은「어머니 마음」의 가사가『부모은중경』의 어머니의 열 가지 큰 은혜(십중대은)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효(孝) 부모님 감사합니다」<sup>27)</sup>가 있는데,『부모은중경』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한 영상을 감상하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효심과 인격을 수행하는데 매우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6) 『삼국유사』의 독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일연 스님의『삼국유사』는『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서의 기본서이다. 특히나『삼국유사』에서 고조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가락국기」의 기록이 없었다면 가야국 500년의 역사도 전설적인 신화가 되었을 것이다. 중국 사대주의자 김부식이 쓴『삼국사기』에는 고조선과 가야국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24) 김의정, 「다도예절인성 지도사 준수법·사범과정」,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7.

25) 서화교(지운),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7.

26) 김의정,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도예절 인성교육 교과서』, 민속원, 2017.

27) 희봉,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효, 부모님 감사합니다」, 『2016 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포교원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2016.

경남 김해시 구산동 구지봉에 가야 건국신화 김수로왕의 신화가 있고,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을 때 함께 온 파사석탑'과 수로왕비릉(허황후릉)이 있다. 최근 가야고분이 경남 창원군 교동에서 250기가 발굴되었다.

『삼국유사』는 역사와 인문학의 보고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불교, 사상, 문화, 예술,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귀중한 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는 고려가 원나라의 침략으로 망국의 위기 상황이었다. 일연 스님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목숨을 희생한 박제상과 같은 호국영령에 대한 기록을 강조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박제상의 충절과 망부석이 된 부인의 정절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역사이야기이다. 신라 문무왕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국정신과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전설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 믿음이 고려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중고등학생의 수준과 교육과정에 맞는 불교 인문학적인 내용이 담긴 경전이나 불서를 선택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재를 편찬하여 독서지도를 한다면 획기적인 포교 방법이 될 것이다.

#### (7) 『님의 침묵』 시문학의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2001년 필자가 청소년 법회 활성화 방안으로 불교문학 작품을 통하여 불교를 이해하고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법회안을 만들어 보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을 발표하였다.<sup>31)</sup>

수많은 불교 문학 작품(시·소설·시조·수필·논설) 가운데서 우선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첫 번째 시도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한용운의 시를 법회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법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보려는 것이다. 불교 관련 내용은 수학능력시험에도 수차례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절을 만 개를 짓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불교를 흥법 포교했다고 한다.

##### ① 불교문학 작품을 법회안으로 활용하는 필요성과 효과

신라 때 승려들이 읊은 향가, 고려 때 균여가 『화엄경』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향가로 읊은 「보현십원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나옹의 「서왕가」, 한글 연구의 기본이 되는 세종의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한용운의 민족독립 사상이나 그의 시집 『님의 침묵』 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이다.<sup>28)</sup>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승려가 아니더라도 돈독한 불심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훌륭한 문학작품과 문화예술을 창조했다. 우리 민족문화나 사상, 동양문화를 이해하는데 불교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대학수능시험에 국어 시문학에 한용운의 시가 수차례 출제되었다. 가장 많이 출제된 단일 인물이 만해 한용운이다.

②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13종)에 나타난 불교 문학작품의 빈도수 (표1)

1. 한용운 ① 님의 침묵	7종	4. 김만중 구운몽	8종
② 알 수 없어요	3종	5. 김시습 만복사포기	4종
③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1종	6. 법정 (수필)	
④ 당신을 보았습니다	1종	①무소유	2종
⑤ 나룻배와 행인	1종	②함께 있고 싶어서	1종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한용운의 문학 비평)	1종	7. 세종대왕 월인천강지곡	3종
2. 일연 ① 단군신화	9종	8. 김동리 (소설) 등신불	1종
② 조신의 꿈	4종		
3. 향가 ① 제망매가 (월명사)	9종		
② 찬기파랑가 (충담사)	4종		
③ 안민가 (충담사)	1종		

28) 김형중, 「문학작품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청소년문화연구소 주관 2001년 10월 세미나, 2001.

③ 대학수학 능력시험 ‘언어 영역’에 출제된 한용운의 시(표2)

19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언어영역, 듣기평가)

96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문제
<p>2. 이번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집 ‘님의 침묵’ 맨 끝에 실려있는 ‘독자에게’ 하는 제목의 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답 : 2번)</p>
<p>독자에게</p> <p>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여러분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때에서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이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p> <p>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엷어 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p> <p>&lt;물음&gt;이 시인이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된 생각은? 답4</p> <p>① 나의 시에는 부끄러운 고백이 많다.                  ② 시는 슬퍼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③ 이제 더 이상 시를 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④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의 슬픔을 극복할 것이다.                  ⑤ 독자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는 무의미한 시이다.</p>

④ 한용운의 시(수험생이 꼭 읽어야 할 11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룻배와 행인」, 「찬송」, 「복종」, 「타고르의 시를 읽고」, 「명상」, 「이별은 미(美)의 창조」, 「군말」 등이 있다.

(8) 템플스테이 참가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 예불, 발우공양, 108배, 스님과의 차담(茶談), 연꽃등 만들기 등의 다

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대학입시나 학교 성적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찰에서 3박4일 단기 출가하여 승려처럼 수행하면서 마음을 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나와 내 마음 알기’의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은 인성교육에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경기도 봉선사는 경기도지방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나비채(나눔, 비움, 채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인성교육에 효과를 본 좋은 사례가 있다.

템플스테이 청소년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좋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이학주 교법사가 개발한 「도토리카드를 활용한 팔정도 행복코칭」이 있다. 이학주 법사는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11년 서울대학교행복연구센터의 ‘행복교과서프로젝트’ 안내공문을 접하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행복수업을 편성하여 주 1시간씩 실시해 본 결과 ‘행복’을 주제로 교법사가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종교교과의 복수선택 의무조항에 따른 어려움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거부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전통 수립 활동을 ‘행복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보편적 지평에서 실시하였다.”<sup>29)</sup>

#### (9) 유튜브 청소년법회를 통한 인성교육

법회는 불법을 설법하거나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스님과 신도가 한 곳에 모여 불사를 행하는 집회의식이다.

법회는 법사스님의 설법이 중심된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에게 법사스님의 감동적인 설법은 큰 영향을 준다.

청소년법회는 대부분 젊은 스님이나 불자 교사가 지도법사를 맡는다. 사찰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청소년을 위한 전문 교화프로그램을 가지고 법회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은 방황하는 사춘기에 사찰의 법회활동을 통하여 법회의식을 익히고,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또래집단의 친구들을 사귀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법회 활동을 통하여 사찰이 신행공동

29) 이학주, 「도토리카드를 활용한 팔정도 행복코칭」, 『2018 인성프로그램』, 2018, 194쪽.

체로서 정체감과 불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이후 오프라인 일반법회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청소년법회 또한 휴점 상태이다. 그 대안으로 유튜브 청소년법회가 있다. 물론 개인 유튜브의 개설은 성공이 쉽지 않다. 치밀한 계획이나 구상이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도한다면 증도에 포기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유튜브법회는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불교종립초중고등학교학생을 중심 대상으로 전국교법사단과 전국불자교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를 통한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포교 방안은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현대는 유튜브가 대세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초중고 대학까지 전면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 학교수업을 대체하였다. 우리 불교는 경전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연이나 랜선 설법을 통한 이해와 소통이 이웃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자 가정에 인터넷 랜선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신행상담과 법회를 통한 설법을 해야 한다.

법사는 마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해야 한다. 마음은 철학, 종교학, 인문학, 정신의학, 심리학, 명상, 심성산업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청소년 유튜브 방송법회 온라인 랜선 설법이 청소년 포교의 활구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불교 교단에게 기회이다. 기독교는 이슬람국가의 전도를 위하여 유튜브 설교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목숨을 위협하는 먼 곳까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적게 든다.

## 5. 맺는말

이상과 같이 사찰과 학교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법포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워드 코로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 또한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 수준에 알맞은 청소년 포교방안을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옛날 초코파이 사주고, 밥 사주면 절에 나오던 시대가 아니다. 코로나19는 종교계에 큰 위협이 되어 모이면 위험한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종교의 쇠퇴기가 도래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사설(2021,10, 20)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4차산업 기술이 발전하였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형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인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동산’을 개관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퀘스트를 해결하고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찾아가는 이 콘텐츠는 공개 4일 만에 95만 명이 방문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MZ세대 포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였다.

불교교단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스마트폰시대, 유튜브시대에 청소년 문화에 맞추어 디지털 불교교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청소년 전법교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8대덕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시민윤리와 세계인의 교양과 인격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 윤리와 생명윤리, 생태계윤리 그리고 국가에 애국하고 충성하는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정립하기 위한 애국심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예술훈, 체육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소양(素養)를 갖추어야 전인적인 인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불교교단은 학교와 사찰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폭력, 술 담배 중독, 이성 문제 등의 문제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불교청소년 리더들이 국제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템플스테이와 홈스테이를 하면서 친교를 맺고 교류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갖는 미래불교의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형중·김문수,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 운주사, 2008.
- 김형중, 『불교사상』 1984년 9월호,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 1984.
- 김영래,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17.
- 김형중,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 자료』,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8.
- 김형중,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 자료』,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18.
- 김형중,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를 고발한다』, 『불교사상』 1984년 9월호, 1984.
- 김형중,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국사·철학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 『교육연구』 제42집, 성신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 김형중, 『문학작품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청소년문화연구소 주관 2001년 10월 세미나, 2001.
- 김형중, 『시로 읽는 불교』, 민족사, 2021.
- 김형중·김문수,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운주사, 2008.
- 김형중,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의 토론문』,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재와 내용』, 2015.
- 동국대학교 불교이동교육연구소,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 『2016년 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 포교원, 2016.
- 덕진, 『불교 천자문』, 우리출판사, 1995.
- 경완, 『불교 한자입문』, 조계종출판사, 2018.
- 김형중,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 밀알출판사, 1992.
- 김형중, 『왕초보 한문박사되다』, 민족사, 2012.
- 김형중, 『한글세대를 위한 부수 그림한자 5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한자교재 간행, 2017.
- 김재욱,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지도 방안』,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지도 방안』, 2002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세미나, 2002.
-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편찬, 『불교와 환경보존』, 도서출판 아름다운세상, 1998.
- 성부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산하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 『청소년 활동명상 프로그램』, 『2015 청소년인성 프로그램』, 2015.
- 금해,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여행』,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8.
- 선업, 『신통방통 육방통』, 『2018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8.
- 정순희, 『초등학교 명상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차정연, 「지적장애인을 위한 절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자립생활과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의정,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다도예절 인성교육 교과서』, 민속원, 2017.

김의정 「다도예절인성 지도사 준수법·사범과정」,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7.

서화교(지운),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2017 인성프로그램』, 조계종 포교원, 2017.

희봉,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효, 부모님 감사합니다」, 『2016 인성프로그램』, 대한불교포교원 인성교육계발·인증위원회, 2016.

김형중, 「문학작품을 통한 법회 활성화 방안」(님의 침묵을 통한 청소년법회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청소년문화연구소 주관 2001년 10월 세미나, 2001.

이학주, 「도토리카드를 활용한 팔정도 행복코칭」, 『2018 인성프로그램』, 2018.

#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 논평

이 학 주\_동국대부속여고 교법사

논문을 읽으면서 불교종립학교에서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안팎으로 쌓은 김형중 박사님의 풍부한 경륜과 불교에 대한 사랑, 포교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포교 방법에 대한 총론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찰과 학교 등 현장에서 시행했거나 실행할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을 잘 읽었다. 특별한 이견이나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론과 영역별로 심화 후속 연구가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이해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 논문의 대강을 간추려 정리해 본 후 몇 가지의 의견을 사족으로 덧붙임으로써 논평자에게 부과된 역할을 해보겠다.

논자는 [머리말]에서 청소년 포교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경전의「전도선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포교의 이유와 목적, 방법을 상기한 후 포교에는 구체적 방법이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37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교 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할 것임을 전제하였다.

[2장]에서 논자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령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5대 핵심역량과 8대 핵심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과 덕목들이 불교의 5계, 8정도, 6바라밀, 4무량심, 4은사상 등에 상응하여 대다수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교 수행의 실천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가치와 효과성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찰에서의 청소년 포교방법에 대하여 논하면서 故 박선영 교수가 제시한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주인’, ‘밝고 따뜻한 주체적 인간’을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삼학, 오계, 팔정도,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은사상, 회심, 발보리심 등의 수행 덕목들을 범회, 템플스



테이, 상담, 경전 읽기, 명상, 염불, 문화예술, 선무도, 등산, 요가, 봉사활동, 다도, 효도, 호국사상, 108배, 발우공양 등을 실행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포교할 것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 논자는 앞에서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여 학교와 사찰에서의 포교 방법에 대해 세목별로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학교에서 각 교과와 종교 편향적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균형 있는 교육을 할 것과 윤리, 국어, 국사, 사회, 한문, 진로, 환경 등의 교과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인성교육을 결합한 형태의 심화학습으로 재구성하여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을 결합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부분은 특히 논자가 중립학교 재직시에 활동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 관련 내용의 올바른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사찰에서의 청소년 포교방안과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불교 포교의 방법을 설법 포교, 문서 포교, 영상 포교 등의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3가지로 대별(大別)하였다. 그리고 세목별로 포교방법을 제시하기를 명상, 염불, 108배, 다도, 『부모은중경』 효도프로그램, 『삼국유사』 독서지도, 『님의 침묵』 시문학 지도, 템플스테이 참가, 유튜브 청소년 법회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삼국유사』나 『님의 침묵』 등 고전과 문학작품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은 문학박사이자 문학평론가인 논자가 제시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흥미로운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맺는말]에서 논자는 지금까지 제시한 포교 방법들이 사찰이나 학교 등 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임을 인정하면서 이제부터 불교 포교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자는 취지로 결론을 맺고 있다. 논평자가 이해하기에 논자는 미래의 포교 방향을 크게 다음의 2가지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경험한 언택트 사회와 탈종교 시대, 가상현실이 현실과 결합한 증강현실의 시대, 나아가 실제로 문화·경제 활동도 이루어지는 메타버스의 세계에 살아가는 MZ세대 청소년들에게 접근 가능한 포교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지구 시민윤리와 생태 환경윤리와 전인적 인성과 글로벌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미래 불자 리더를 육성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논평자가 나름대로 파악한 논문의 요지를 살펴본 결과 이 논문으로부터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포교를 인성교육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한다. 논자가 머리말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초의 포교 지침 ‘전도선언’에서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했듯이 불교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논문은 포교의 길을 떠나는 목적에 대해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포교, 특히 학교에서의 포교는 교육과정과 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학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연령대에 해당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국제중이나 자사고 등의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서 정하며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을 일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논평자로서 다음 세 가지의 질문과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글을 맺는다.

첫째, 논평자는 ‘포교’라는 용어가 청소년을 대상화 객체화시킴으로써 불교와 분리되고 멀어지게 하는 위험이 있어서 과연 적절하고 유용한 용어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포교’, ‘교육’, ‘교화’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논자는 이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둘째, 평자는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든 불교를 접하였을 때 논리적, 정서적으로 매력을 느끼거나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어서 효용적 가치를 알게 되어야 포교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의하신다면 논자가 제시한 다양한 포교 방법들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의 시점에서 적용 가능하며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한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셋째, 청소년 포교에 임하는 불교 교단의 입장과 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단의 미래가 걱정되니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고 함은 교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단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고 걱정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자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

#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진스님(안현정)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육바라밀과 철학활동
  - 2. 육색모자 사고활동
  - 3.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3. 연구절차
  - 4. 자료분석
- IV. 연구결과
  - 1. 육바라밀기반 유아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
- V. 결론 및 논의

## I. 서론

육바라밀(六波羅蜜)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으로, ‘너’와 ‘나’가 함께 성숙하여 다 같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육바라밀의 덕목을 살펴보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지혜)이며, 이는 일체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욕심을 절제하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어떤 일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그리고 육바라밀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으로 앞서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필수조건인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권은주, 2015).

아동철학은 70년대 말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 이론이 소개되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에서 사고 교육이 교육계에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철학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Kant는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이는 “지식으로서의 철학과 태도로서의 철학함”(Martens, 1999)이라고 주장한다. Wittgenstein(1921)도 “철학은 학설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며, 이는 ‘철학하는 것’, 또는 ‘철학함’으로서의 철학의 성격은 주어진 탐구 대상이나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진지하게 사고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 방법’에 따라 의문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철홍 외, 2002).

유아는 철학적 존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유아의 경우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더해가며 탐구하기를 즐기고, 유아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어린이철학교육(Philosophy for Children: P4C)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한 Lipman(2005) 역시 철학교육은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고활동과 함께 철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rtens(1999)에 의하면 유아는 어떤 하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체념적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희(2004)도 사고 훈련의 시기에 대하여 형식적 조작 논리가 갖춰진 시기가 아닌 오히려 더 어린 연령의 아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2012)의 보고에 따르면 의미를 추구하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유아를 위한 철학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DeBono(1985)는 수직적 사고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고까지 기를 수 있는 사고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는 여섯 가지의 색깔모자가 의미하는 특성의 사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육색모자는 사고 양상을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하는 것으로 유아들은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여섯 가지의 사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김효순(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육색 사고 모자 활동을 통해 감성적, 이성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의사소통을 할 때 친밀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목표나 기대가 다른 경우에는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또래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아는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하여 또래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Girolametto, Weitzman 그리고 Greenberg(2004)에 의하면 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유아가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높으며, 더 나아가 또래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Hazen과 Black(1989)은 공감과 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수단이 될 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질적 수준과 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핵심이자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한다(정상섭, 2006).

이와 관련하여 육바라밀(六波羅蜜)기반의 철학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 뿐 아니라 유아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데에 적합하며, 불교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안현정(2016)은 육바라밀 철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인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상위능력인 메타인지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기인식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적 사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박명숙, 유연옥, 2007; 임운정, 2007; 조선희, 2011) 유아를 대상으로 철학활동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한 철학활동과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활용한 철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유아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며, 공감능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육바라밀과 철학활동

#### 가. 육바라밀(six-pāramitā, 六波羅密)

대승불교의 전통 위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즉 보살(菩薩, Bodhisattva)의 구체적인 실천수행의 여섯 가지 덕목을 육바라밀다(六波羅密多, Sat-pāramitā)라 한다. 그리고 육바라밀은 보살(菩薩)이 열반(涅槃)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으로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한다.

권은주(2015)는 육바라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는 일’,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하며 인간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덕목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육바라밀은 보살(菩薩)의 구체적인 실천덕목으로 보시, 지계, 인욕은 중생구제를 위한 이타행(利他行)이며, 정진, 선정, 지혜는 자기완성을 향한 자리행(自利行)이다. 여섯 가지 바라밀의 덕목을 살펴보면, 일체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희생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 스스로 계율을 지키며 선한 행동을 하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密),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욕심을 절제하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 어떤 일을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의 정진바라밀(精進波羅密),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사려 깊게 생각하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密), 그리고 육바라밀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으로 앞서 다섯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필수조건인 반야바라밀(般若波羅密)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불교의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불교가 추구하는 인격적 완성을 목적으로 엮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삼학(三學)이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면, 팔정도(八正道)는 개인의 수행방법이고, 육바라밀(六波羅密)은 개인의 사회화에 필요한 실천덕목인 것이다. 안현정(2016)에 의하면 이들 모두는 나 이외의 모든 인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정신과 공동체적 의식 및 인품을 기르고 가꾸어 가는 데 있어 탁월한 교육내용이라고 하였다.

#### 나. 유아 철학활동

철학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Philosophia’(Φιλοσοφί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동사 ‘Philein’(to love, having concern for, 사랑하다)과 명사 ‘sophia’(wisdom, knowledge, 지혜, 지식)의 합성어로, ‘Philosophia’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함’이며, 철학에서는 그 어원상 ‘애지’(愛智)라는 뜻으로 지혜 또는 지식을 사랑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Kant는 지식의 체계로서의 ‘철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고, Wittgenstein(1921)도 “철학은 학설의 체계가 아닌 하나의 활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철학교육에 대하여 Lipman(2005)은 철학교육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사고활동과 함께 철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rtens(1999)도 유아들은 어떤 하나의 앞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알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 체념적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끊임없이 ‘왜?’라고 발문하며, 발문하는 순간부터 철학적 사고의 문이 열린다고 하였다. 고현숙(2007)에 의하면 유아는 ‘왜?’라는 물음 속에서 인과적 설명을 끌어내고, 어떤 사물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행동이 무엇을 위해 행해진 것인지를 묻는 가운데 이미 사물과 타자에 관계를 맺으면서 철학하는 방법을 배워간다고 하였다. Matthews(1980)도 유아가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놀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고 속에 내포된 철학성을 기초로 유아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선희(2004)는 사고 훈련의 시기는 형식적 조작 논리가 갖춰진 시기가 아닌 오히려 더 어린 연령의 아동기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철학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철학함’을 통해 무비판적인 사고, 어리석은 판단, 편견과 관념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 스스로 사고하거나 친구와 함께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Fisher, 2008). 뿐만 아니라 철학활동에서는 유아의 생각하는 과정과 생각하는 능력에 관심을 가진다(홍승분,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유아교육, 특히 불교유아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였다. 실제로 선행연구(박명숙, 유연옥, 2007; 임윤정, 2007; 2009; 조선희, 2001; 홍승분, 2007)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철학활동을 고찰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 2. 육색모자 사고활동

‘육색모자 사고활동(Six Color Thinking Hats)’은 DeBono(1985)가 제안한 활동으로, 창의적 사고를 기르고, 단순성과 사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 때문에 아동의 사고 훈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육색모자는 사고 양상을 분류하여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하는 개념이다.

육색모자 사고활동은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쓰고 하는 역할 놀이로 진행되기도 하고, 토의·토론, 협동 기술 훈련,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육색모자 사고활동에서 사고 행동의 기본 양식은 각기 다른 색의 모자로 주어지며, 한 가지 유형의 사고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활동의 흐름은 먼저, 주제 정하기, 다음으로 역할 분배(각기 다른 여섯 가지 색깔의 모자를 쓴다.), 토의 및 토론(각자 다른 색깔의 모자에 해당하는 사고를 하여 발언한다.), 기술 습득(사고의 훈련과 토의 기술이 습득되면 육색모자 없이 토의를 진행한다.) 순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처럼 육색모자 사고활동은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감성이 시키는 대로 자신에게 좋고, 싫은 것만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성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교육부(2017)에서는 육색모자 사고활동과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 다각도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토론·토의 및 회의에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역할놀이로 완화시키는 ‘중재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토론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김효순(2005)은 아동들이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감성적, 이성적,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하얀 모자와 빨간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감성적 차원의 ‘좋다-싫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란 모자와 검은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서 이성적 차원의 ‘맞다-틀리다’와 관련된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초록 모자와 파란 모자 사고활동을 통해서 도덕적 차원의 ‘옳다-그르다’와 관련한 생각을 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의 주제를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여섯 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공감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 3.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구민호(2009)는 육바라밀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육바라밀을 주제로 불교 철학적 관점에서의 답을 제시하고, 교육철학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육바라밀이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알아야 할 불교의 수행방법일 뿐 아니라 불타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활동은 육바라밀의 여섯 가지 덕목을 통하여 유아들의 사고를 독려하는 교육활동으로써 교육적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발달의 기본 틀이 갖추어지는 유아기 교육으로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조선희(2004)의 철학놀이와 활동 원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철학놀이는 상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놀이를 활용하여 유아철학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사고발달의 특성상 유아의 철학적 탐구는 상상적 사고에 의존하고 또 상상적 사고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철학놀이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기술에 초점을 두는 놀이를 통하여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상상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여기에서 구체적 사고기술이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기,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으로 표현하기, 자기의 생각에 대한 이유 말하기, 사물들을 서로 비교하기,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개념을 파악하기,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개념을 확대하기, 추론하기, 다른 대상의 입장 되어 보기,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자신의 사고에 대해 생각하기, 상상하기 등이다. 셋째, 철학놀이는 철학함의 방법을 유아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단순히 암송을 통한 지식습득이 아닌 다양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철학적 질문 혹은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과 능력을 강조한다. 넷째, 철학놀이는 탐구공동체 방법을 강조한다. 소집단활동이나 대집단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율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다섯째, 철학놀이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아의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교사의 지시적인 활동이 아닌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야 한다. 여섯째, 철학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철학적 질문에 접근하도록 한다. 유아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철학놀이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철학놀이를 위한 철학적 질문이나 개념을 추출하여 철학적 탐구를 해보도록 한다. 여덟째, 철학놀이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성장을 강조한다. 교사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색함에 있어 유아들과 같음을 인정하고 철학

적 탐구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DeBono(1985)가 제안한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수직적 사고뿐만 아니라 수평적 사고까지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섯 가지의 색깔모자가 의미하는 특정의 사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유아들은 구체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여섯 가지의 사고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조선희(2004)의 유아 철학놀이 활동과 DeBono(1985)가 제안한 창의적 사고 기법인의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통합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유아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구성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Y 불교유치원 만 5세 유아 2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다. 비교집단은 동일지역 인근에 위치한 Z 불교유치원 만 5세 2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집 단	남	여	계
실험집단	9	11	20
비교집단	10	10	20
전체	19	21	40

실험집단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훈련받은 연구보조자(유아교육 전공 석사졸업, 유아교육 현장 경력 9년 이상)가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처치하였다. 비교집단은 만 5세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대·소집단활동을 처치하였다.

## 2. 연구도구

### 가. 유아 공감능력 척도

유아 공감능력 척도는 임영숙(2021)이 개발한 것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6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소통적 공감'은 .848, '사회적 공감'은 .843, '정서적 공감'은 .856, '인지적 공감'은 .777로 매우 양호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표 2> 유아용 공감능력 검사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alpha$
소통적 공감	5	1, 2, 3, 4, 5	.848
사회적 공감	5	6*, 7*, 8*, 9*, 10*	.843
정서적 공감	5	11, 12, 13, 14, 15	.856
인지적 공감	3	16, 17, 18	.777
전체	18	1-18	.896

\*표는 역채점 문항임

### 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동화 선정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의 불교적 개념과 철학적 의미를 교육내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육매체로 불교동화 6편을 선정하였다. 동화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은 유아의 일상 경험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자율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며, 철학적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불교동화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유아교육 전문가 총 10인(유아교육 전공한 교수 2인, 유치원 원장 3인, 유치원 현장경력 9년 이상의 현직교사 5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육바라밀에 대한 6개 하위내용 실천을 위해 최종 선정된 6편의 불교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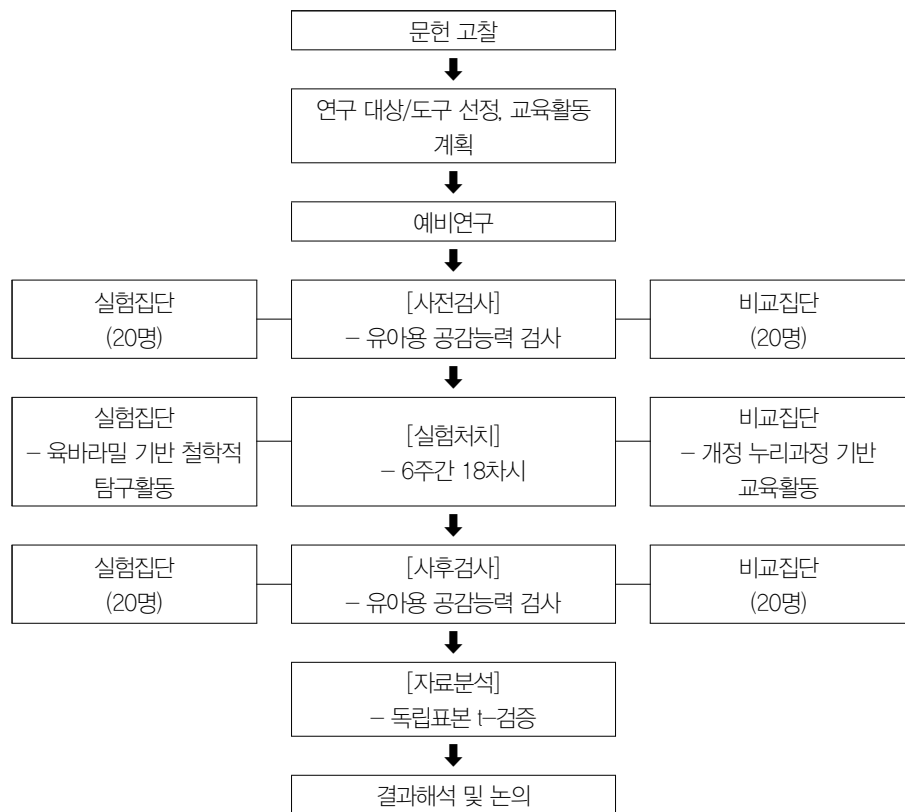
<표 3> 2차 최종 선정된 불전설화 목록과 선정된 불교동화

권수	경번호	불전설화 목록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1	288	고기떼의 전생	두 형제 이야기	보시
2	38	청로의 전생	욕심 많은 해오라기 <sup>1)</sup>	지계

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권수	경번호	불전설화 목록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3	407	큰 원숭이의 전생	큰 원숭이 왕 이야기 <sup>2)</sup>	인욕
4	387	바늘의 전생	대장장이와 바늘	정진
5	449	빛나는 귀고리의 전생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sup>3)</sup>	선정
6	20	노움촌의 전생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sup>4)</sup>	지혜

3. 연구절차



[그림 1] 연구의 진행절차

1) 권대원, 김세인(2014). 욕심 많은 해오라기. 양서원.  
 2)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73>  
 3) 권대원, 김세인(2014).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양서원.  
 4) 권대원, 김세인(2014).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양서원.

본 연구는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로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해 전문가 10인에 의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6편의 불교동화를 선정하였다. 실험처치는 조선희(2004)의 철학놀이와 DeBono(1985)의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활동을 토대로 총 6주 동안 18회기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효과 검증은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집단 간 평균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가. 예비연구

본 연구의 실험처치에 앞서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지, 예상시간 및 활동방법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파악하고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광주광역시 H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 2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가 실행되기 일주일전 2021년 8월 9일~8월 10일까지 2일간 유치원 일과 중 대집단 활동이 전개되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통해 실시하였다. 첫째 날은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중의 하나인 궁금놀이를 실시하였고, 둘째 날은 토론놀이를 실시하였다.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궁금놀이와 토론놀이 모두 약 25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아들은 동화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등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연구의 적합성뿐 아니라 교육활동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사전검사

본 연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 20명과 비교집단 2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적용되기 1주일 전인 2021년 8월 23일~2021년 8월 25일(3일간)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검사는 연구자와 훈련받은 유아교사 1인(교육경력 9년 이상)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검사는 임영숙(2021)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유아에 의한 자기보

고식 평정 방식이다. 예를 들면, 검사자가 유아에게 해당 문항을 질문하면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한다. 만약 ‘아니요’ 또는 ‘몰라요’라고 답하면 1점으로 체크하고, ‘예’라고 대답하면 유아에게 반응지(크기가 다른 동그라미가 4개 그려져 있음)를 보여주며 어느 정도인지를 동그라미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동그라미 4개에 해당하는 점수는 각각 2점에서 5점까지이다. 검사 장소는 검사하는 동안 유아가 방해 받지 않도록 일대일로 원장실 또는 조용한 곳에서 실시되었으며, 소요 시간은 유아당 약 20분 정도이다.

#### 다. 검사자 훈련 및 교사교육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검사자 훈련 및 교사교육은 2021년 8월 17일~8월 19일 까지(3일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집단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육바라밀의 개념 및 이해, 철학적 탐구활동의 개념과 활동방법, 활동 내용, 교사의 역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피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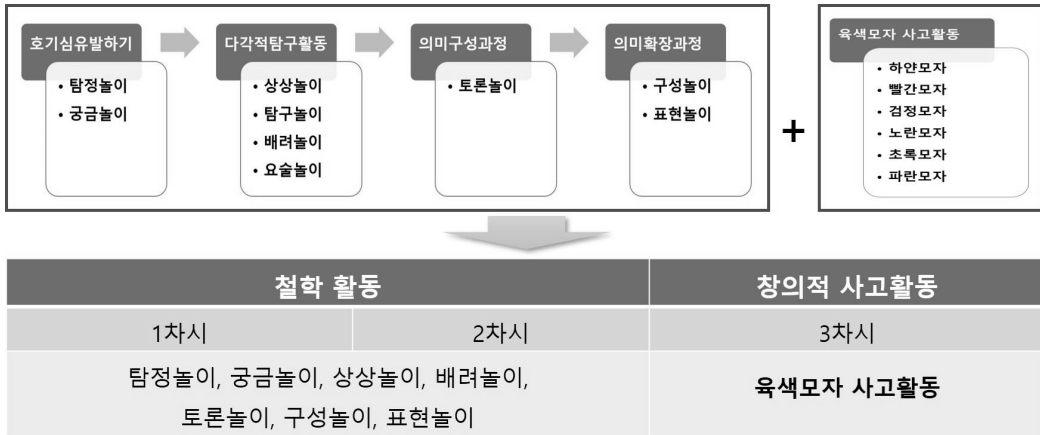
#### 라. 실험처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을 위한 교육활동의 구성은 권대원(2008)의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과 조선희(2004)의 유아 철학놀이를 기초로 하였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교수 2인, 유아교육 전공의 교육학 박사 2인, 유치원 원감 1인과 연구자가 함께 재구성하였다.

##### 1)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전개

본 연구의 교육활동은 조선희(2004)가 제안한 9개의 철학놀이(탐정놀이, 궁금놀이, 상상놀이, 탐구놀이, 배려놀이, 요술놀이, 토론놀이, 구성놀이, 표현놀이)와 호기심 유발과정, 다각적 탐구과정, 의미 구성과정, 의미 확장과정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확장활동으로는 불전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DeBono(1985)가 개발한 육색모자 사고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토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철학놀이 방법 중 탐구놀이와 요술놀이를 제외한 7가지 놀이방법을 1차시와 2차시의 철학적 탐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3차시는 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육색모자 사고활동을 전개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과정

## 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궁금놀이’는 [의문 가지기], [의문 표현하기],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의 활동을 하면서 동화 속에서 놀라움이나 궁금증을 가져 보도록 하였다. 탐정놀이는 추론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상상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배려놀이를 통해서 배려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토론놀이에서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놀이에서는 구성물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표현놀이에서는 동극이나 조각활동으로 표상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육색모자 사고활동에서는 6가지 색깔의 모자가 의미하는 특정의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뿐 아니라 수평적 사고를 활용하여 폭넓은 사고를 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하였다. 각 활동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에 따른 활동 단계와 내용

활동유형	활동 단계와 내용	
	1차시 & 2차시	3차시
궁금놀이	① 의문 가지기 ② 의문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b>육색모자 사고활동</b> ① 하얀모자(사실모자):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② 빨간모자(감정/느낌 모자): 감정 느낌에 대해 공감하기 ③ 검정모자(부정모자): 부정적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 ④ 초록모자(창의/대안 모자): 창의적인 대안 찾아보기
탐정놀이	① 문장 제시하기 ② 생각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활동유형	활동 단계와 내용	
	1차시 & 2차시	3차시
상상놀이	① 상상하기 ② 생각 표현하기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⑤ 파란모자(정리모자):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정리하기
배려놀이	① 문제 찾기 ② 극으로 표현하기 ③ 해결방안 정하기	
토론놀이	① 토론 질문 살펴보기 ② 철학적 토론하기 ③ 토론 평가하기	
구성놀이	① 주제 찾기 ② 구성하기 ③ 구성 평가하기	
표현놀이	① 계획하기 ② 표상하기 ③ 표현 평가하기	

3) 비교집단의 누리과정기반 교육활동

비교집단의 교육활동은 개정 누리과정을 토대로 총 5개의 주제가 6주에 걸쳐 18주치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의 누리과정 기반 교육활동은 <표 5>와 같다.

<표 5> 개정 누리과정기반 교육활동 내용

기간	주제	소주제	활동명	활동유형	주요 관련영역
1주	교통기관의 종류	내가 이용한 교통 기관 알아보기	내가 이용한 교통기관	이야기 나누기	자연탐구, 의사소통
		교통기관의 특성 알아보기	교통기관 소리 알아맞히기	게임	신체운동·건강
		기관 알아보기	바퀴수가 달라요	이야기 나누기	자연탐구, 의사소통
2주	고마운 교통 기관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정류장을 이용해요	이야기 나누기	의사소통, 사회관계
		특별한 교통 기관 알아보기	다른 나라의 특별한 교통수단	이야기 나누기	자연탐구, 사회관계, 의사소통
		특별한 교통 기관 알아보기	여행자에게 편리해요	수·조작	사회관계, 의사소통
3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 옷 살펴보기	한복을 바르게 입어요	이야기 나누기	사회관계, 의사소통



기간	주제	소주제	활동명	활동유형	주요 관련영역
4주		우리나라 음식 즐기기	평절과 큰절을 해요	이야기 나누기	사회관계, 의사소통
			밥상 차리기	수·조작	자연탐구, 사회관계
			백설기를 만들어요	요리	자연탐구, 사회관계
			차 마시는 예절	이야기 나누기	신체운동·건강, 자연탐구
			맛있는 쌀강정	요리	자연탐구, 사회관계
5주	우리나라 놀이와 예술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즐기기	도개걸쫄모 방패연	수·조작	사회관계, 자연탐구
			박물관의 전통 놀잇감 유물을 체험해요	체험	사회관계, 의사소통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 경험하기	사물놀이 이야기	동극	사회관계, 예술경험
6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우리나라의 옛이야기 감상하기	옛 이야기 새롭게 지어보기	언어	의사소통, 사회관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	아름다운 지구인	음악	사회관계, 예술경험
		세계의 다양한 의생활 알아보기	누가 왔을까?	동시	사회관계, 의사소통

#### 4) 진행과정

본 실험은 2021년 8월 30일~2021년 10월 8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주 3회씩(총 18회기)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수업은 매 차시당 약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활동방법에 따라 대·소집단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비교집단에는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만 5세 교육활동이 대·소집단활동 중심으로 30~40분 실행되었다. 실험진행 절차 및 일정은 <표 6>과 같다.

<표 6> 실험 진행 절차 및 일정

일정	실험집단	비교집단	기간
사전검사	유아공감능력 검사	유아공감능력 검사	2021.08.23.~08.25.
실험처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개정누리과정기반 교육활동	2021.08.30.~10.08.
사후검사	유아공감능력 검사	유아공감능력 검사	2021.10.12.~10.14.

마.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본 연구의 실험처치가 끝난 후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3일간)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용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28.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또한 실험처치에 대한 효과 검증은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통해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육바라밀기반 유아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

본 연구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활동주제를 선정하고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의 구성 내용

No.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1차시	2차시	3차시
		철학활동(1)	철학활동(2)	육색모자 사고활동
1	두 형제 이야기 (보시)	(궁금놀이) 동화 듣기 질문 만들기	(토론놀이) 나눔이란 무엇일까?	아버지의 유산 어떻게 할까요?
2	욕심 많은 해오라기 (지계)	(탐정놀이) 질문에 O, X로 답하기	(토론놀이) 약속이란 무엇일까?	해오라기는 왜 거짓말을 했나요?
3	큰 원숭이 왕 이야기 (인욕)	(배려놀이) 만약 내가 원숭이라면~	(토론놀이) 인내란 무엇일까?	임금님은 원숭이를 왜 죽이려고 했나요?

No.	불교동화 제목 (육바라밀 덕목)	1차시	2차시	3차시
		철학활동(1)	철학활동(2)	육색모자 사고활동
4	대장장이와 바늘 (정진)	(상상놀이) 만약 내가 청년이라면?	(토론놀이)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대장장이는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5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선정)	(토론놀이) 사유란 무엇일까요?	(구성놀이) 바른 사유 표현하기 동화 다시 만들기	아버지는 왜 아들의 무덤 앞에서 날마다 울었나요?
6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지혜)	(토론놀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표현놀이) 동극으로 표현하기	배가 고픈 호수귀신은 어떻게 하였나요?

<표 7>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은 육바라밀의 ‘보시’와 관계된 ‘두 형제 이야기’에서 ‘나눔이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1, 2, 3차시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다루어진 교육활동 사례이다.

■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 사례(예시)

【1차시】

□ 궁금놀이: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 불전설화 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기
-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궁금놀이
- 활동목표
  - 동화 내용에서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궁금증에 대한 생각과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 ■ 활동자료

- 동화자료, 질문 활동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칠판

### ■ 활동시 유의점

- 유아의 궁금한 질문에 대하여 교사가 판단하여 질문에 옳고 그름에 치중하지 않는다.
- 유아가 질문지를 어려워하는 경우, ‘다음에 다시 해보자’ 하며 격려한다.
- 유아가 궁금한 것이 없다고 말할 경우 동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며 질문을 함께 만들어 본다.

## □ 활동과정 및 내용

### (1) 도입: 불교동화 듣기

- 손유희를 하며 동기유발을 진행한다.
  - ‘재밌는 동화가 왔어요.’ 잘 들어보자.
  - 동화야 열려라 짹짹 손유희를 한다.
  - ‘오늘은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먼 옛날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그런데 제목이 빠져있네요? 부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며 궁금증을 유발한다.
- ‘두 형제 이야기’를 다양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준다.

### (2)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 ① 의문가지기

- 동화를 듣고 동화와 관련된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고, 이유도 생각해 본다.
  - “○○이 궁금한 이유는 무엇이니?”
  - “어떤 점이 너의 생각과 달랐니?”

#### ② 의문표현하기

- 개인 활동지를 사용하여 활동지에 자신의 질문과 이유를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 ③ 자기 의견에 대한 이유 말하기

- 질문이 완성되면 자신의 궁금한 점과 이유를 발표해 본다.
- 나와 친구의 생각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 반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선택하여 질문에 대한 이유를 말해본다.

(3) 활동평가

- 동화 내용에 관련된 자신의 궁금증을 바르게 표현했는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었는지, 궁금함이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등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2차시】

□ 토론놀이: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9월 1일(수)
- 불전설화 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다각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 이해하기
- 철학적 탐구활동 방법: 토론놀이
- 활동목표
  - ‘나눔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토론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토론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자료
  - 동화자료, 질문 활동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칠판, 토론 규칙판
- 활동시 유의점
  - 유아가 토론과정에서 ‘정답’에 도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교사의 견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유아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고무시킨다.

□ 활동 과정 및 내용

(1) 도입: 불교동화 탐색

- ‘두 형제 이야기’에 대한 즐거리를 회상한다.
- 지난 궁금놀이 시간에 나온 친구들의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하여 알아본다.
  -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의 내용이 기억날까요?

## 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 우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뽑은 질문은 무엇이이었을까요?

### (2) 철학적 탐구활동 전개

#### ① 토론 질문 살펴보기

- 나눔이란 무엇일까?  
- ‘나눔’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본다.

#### ② 철학적 토론하기

- 나눔은 언제 하는 것일까?
- 나눔은 누구에게 할까?
- 나눔은 왜 하는 걸까?
- 칭찬받기 위해 나누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 나눔은 다 좋은 것일까?
-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걸까?
- 나눔이란 무엇일까?

#### ③ 토론 평가하기

-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나눔’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나와 어떤 점이 다른지 발표한다.

### (3) 활동평가

- 토론할 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했는지, 토론 놀이가 즐거웠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 【3차시】

- 육색모자 사고활동: 나눔이란 무엇일까?

- 주제: 나눔이란 무엇일까?
- 일시: 2021년 9월 3일(금)
- 불전설화선정동화: 두 형제 이야기(고기떼의 전생)
- 활동시간: 20분~30분
- 활동유형: 대, 소그룹
- 철학적 탐구활동 목표: 육색모자 사고활동으로 ‘나눔’의 의미 이해하기
- 창의적사고활동방법: 육색모자 사고활동
- 활동목표
  - 유아가 육색모자 사고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활동자료: 동화자료, 발표 마이크, 육색모자(흰색,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 활동시 유의점
  - 교사의 견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유아 스스로 생각하도록 고무시킨다.

□ 활동과정 및 내용

(1) 도입

- 지난 토론놀이 시간에 친구들이 발표한 토론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우리는 ‘두 형제 이야기’ 동화를 듣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었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내용은 무엇인가요?
- 오늘의 육색모자 사고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활동 전개

① 육색모자 사고활동 소개하기

<사례 1>

- 발표할 유아 6명을 선정한다.
- 쓰고 싶은 모자를 고른 후 순서대로 앉는다.
- 교사의 질문에 모자의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 만약 자신이 발표할 차례이지만 생각이 안 나면 자신의 모자를 다른 친구에게 씌워주고 대답할 수 있다.

<사례 2>

- 교사가 질문을 한다.
- 유아가 앞으로 나와 해당 모자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 발표할 친구가 더 있으면, 모자를 받아쓰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② 육색모자 사고활동 전개

- 선생님이 ‘하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동생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 하얀모자: 동생이 혼자만 가지려고 했어요. 욕심쟁이처럼 혼자 가져요.
- 선생님이 ‘빨간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동생은 아버지가 남긴 많은 돈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빨간모자: 기분이 좋았어요. 신나요.
- 선생님이 ‘검정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동생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을 형님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 검정모자: 돈이 작아져서 싫어요.
- 선생님이 ‘노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아버지가 주신 돈을 형님과 나누면 작아질 수 있지만 돈이 꼭 많아야 좋은 걸까요? 돈이 적으면 안 되는 걸까요?  
- 노란모자: 돈이 작아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형님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 선생님이 ‘초록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동생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초록모자: 형님과 나눠서 가져요. 욕심부리지 않고 동생과 엄마에게도 나눠줘요.
- 선생님이 ‘파란 모자’를 쓴 친구에게 질문할까요?  
■ 동생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파란모자: 아버지의 말대로 형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③ 활동평가

- 육색모자 활동에 참여한 느낌은 어떠했나요?  
- 육색모자 활동은 즐거웠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 발표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했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 다음 차시에 할 활동을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

## 2.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t-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공감능력 동질성 검증

영역	실험집단(N=20)		비교집단(N=20)		t
	M	SD	M	SD	
소통적 공감	18.85	1.93	18.80	2.38	.942
사회적 공감	18.20	6.20	19.60	4.79	.429
정서적 공감	19.50	4.01	19.70	3.34	.865
인지적 공감	13.15	1.84	12.75	1.94	.508
공감능력 전체	69.70	9.66	70.85	9.76	.710

$p > .05$

<표 8>에서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 $t=.710,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소통적 공감( $t=.942, p>.05$ ), 사회적 공감( $t=.429, p>.05$ ), 정서적 공감( $t=.865, p>.05$ ), 그리고 인지적 공감( $t=.508, p>.05$ )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 나.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사후검사 결과에 대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의 공감능력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영역	집단	유아수(N)	평균(M)	표준편차(SD)	t
소통적 공감	실험집단	20	22.90	1.83	.000***
	비교집단	20	18.95	2.98	
사회적 공감	실험집단	20	23.70	1.78	.927
	비교집단	20	23.75	1.65	
정서적 공감	실험집단	20	21.60	3.35	.201
	비교집단	20	20.10	3.92	
인지적 공감	실험집단	20	14.20	0.89	.004**
	비교집단	20	12.85	1.79	
공감능력 전체	실험집단	20	82.40	5.71	.003**
	비교집단	20	75.65	7.46	

\*\* p < .01, \*\*\* p < .001

〈표 9〉에서와 같이 유아 공감능력의 전체 점수( $t=.003, p<.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소통적 공감( $t=.000, p<.001$ )과 인지적 공감( $t=.004,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공감( $t=.927, p>.05$ )과 정서적 공감( $t=.201, p>.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을 구성하고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 구성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기반으로 활동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철학적 탐구활동은 조선희(2004)가 제안한 철학놀이 7개(탐정놀이, 궁금놀이, 상상놀이, 배려놀이, 토론놀이, 구성놀이, 표현놀이)와 호기심 유발과정, 다각적 탐구과정, 의미 구성과정, 의미 확장과정을 기초로 1, 2차시에 적용하였다. 또한 3차시에는 불전설화의 내용을 토대로 육색모자 사고기법(DeBono, 1985)을 활용하여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공감하고 바라보는 육바라밀 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였다.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에서 ‘궁금놀이’는 동화 내용에 대해 놀라움이나 궁금증을 가져 보는 활동이며, ‘탐정놀이’는 유아의 추론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며, ‘상상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려놀이’를 통해서 배려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고, ‘토론놀이’에서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구성놀이’에서는 구성물을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표현놀이’에서는 동극이나 조각활동으로 표상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중심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활동일 뿐 아니라 조선희(2004)가 제안한 철학놀이 활동이 육바라밀을 기반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공감능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통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영(2016)의 연구에서 공감에 기반한 토론수업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이해력, 자기조절력, 또래 상호작용 행동,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김견미(2014)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인성적으로 풍부해졌다는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뿐 아니라 소통적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철학교육은 유아교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철학적 사고능력이 모델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아 철학교육은 현장의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의 철학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광주지역의 만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여러 연령층과 성별을 변인으로 한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유아의 철학적 토론 활동과 철학적 사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하거나 발달 변인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고현숙(2007), 「아동철학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듀이 철학과 립만의 LAPC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교육부(2017.7.7.)>, 「교육정보,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육색 사고 모자 활동」(<https://if-blog.tistory.com/7162>) (2021.10. 인출)
- 구민호(2009),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한 불교윤리의 교육철학적 조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대원(2008),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육심 많은 해오라기』, 양서원.
- 권대원·김세인(2014), 『지혜로운 원숭이 왕과 호수귀신』, 양서원.
- 권은주(2015), 『불교 유치원 교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양서원.
- 김견미(2014), 「공감능력에 기초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2005), 「육색 사고 모자 활동을 통한 ‘다양하게 생각하기’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유연옥(2007), 「철학적 탐구 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327-347.
- 박철홍 외 6인(2002), 『신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안현정(2016), 「육바라밀기반 철학활동이 유아의 메타인지 및 자기인식과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6), 「공감에 기반한 유아 토론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12), 「플라톤『대화편』과 만 5세 유아들의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의 토론과정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숙(2021), 「유아용 공감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광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윤정(2007),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방법론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 44호, 51-75. 「유아철학 방법론 고찰 -“유아철학놀이”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 40집.
- 임윤정(2009),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을 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 『새한철학회』 철학논총(55), 323-337.
- 정상섭(2006),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희(2004), 『유아 철학놀이』, 창지사.
- 조선희(2011), 「철학적 토론활동에 나타난 유아의 추론수행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 2호, 369-392.
- 홍승분(2007), 「유아 철학놀이가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Bono, E. (1985), *Six thinking hats*. London: Penguin Book.
- Fisher, M. (2008), *Organisms and teleology in Kant's natural philosophy*. Emory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Girolametto, L., Weitzman, E., & Greenberg, J. (2004), The effects of verbal support strategies on small-group peer interactions.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5(3), 254-268.
- Haz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and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4), 867-876.
- Lipman, M. (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박진환, 김혜숙 역, 서울: 인간사랑.(2003년 원저 발간).
- Martens, E. (1999), *Philosophieren mit Kindern*. 박승역(역)(2000),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 Mattews, G. B. (1980), *Philosophy and Young Child*.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 동문회 (편역)(1987).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 서광사.
- Wittgenstein, L.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hilosophical investigation*. 이영철(역) (1991), 『논리-철학논고』, 서울: 천지.

#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논평

임 영 숙\_전남대 교육학 박사, 전 건국유치원장

육바라밀(六波羅蜜)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섯 가지 덕목이며, 각각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불교의 교육내용은 궁극적으로는 불교가 추구하는 인격적 완성을 목적으로 엮여졌는데, 그중에서도 삼학(三學)이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한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면 팔정도(八正道)는 개인의 수행방법이고, 육바라밀(六波羅蜜)은 개인의 사회화에 필요한 실천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바라밀 기반의 불교 증흥과 포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자타카에 나타난 불교적 가치분석과 유아교육적 의미(박현진, 2004; 박현진, 정대련, 2005)와 유아 국악교육 프로그램 연구(황부남, 2005),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유지현, 2013; 유지현, 김혜순, 2015), 연가론 기반으로 한 유아인성교육 모형 연구(박혜진, 권은주, 2014), 육바라밀기반 철학활동이 유아의 메타인지 및 자기인식과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안현정, 2016), 자타카의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및 내용 분석(정도진, 2017)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바라밀기반의 유아철학교육 활동은 유아의 메타인지 및 언어표현력(안현정, 권은주, 2018)과 유아의 자기인식 및 또래상호작용(안현정, 권대원, 2019)에 효과적임을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유아는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더해가며 탐구하기를 즐기고, 유아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철학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이러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 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유아를 위한 철학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육바라밀기반의 철학활동은 유아의 공감능력 뿐 아니라 불교

적 가치가 있는 활동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발표자의 이러한 노력은 선행연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메타인지와 자기인식, 확산적 사고에 효과적이며(안현정, 2016), 유아의 언어표현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안현정, 권은주, 2018), 또래상호작용에 효과적(안현정, 권대원, 2019)임을 보고한다. 무엇보다 발표자의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 주제인 ‘육바라밀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불교 중흥과 포교 활성화 방안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발표자는 조선희(2004)의 유아 철학놀이 활동과 DeBOno(1985)가 제안한 창의적 사고 기법인 육색모자 사고 활동을 통합한 철학적 탐구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차시에는 궁금놀이, 탐정놀이, 상상놀이, 배려놀이, 토론놀이, 구성놀이, 표현놀이가 적용되었으며, 3차시에는 폭넓은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육색모자 사고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육색모자 사고 활동은 6가지 색깔의 모자가 의미하는 특정의 사고를 통해 폭넓은 사고를 하는 기회가 되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수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제안한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과 이에 따른 교수-학습 접근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여 불교 중흥과 포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육바라밀기반의 철학적 탐구활동은 유아 철학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링이 되어 유아교육현장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교종립대학 교양교과를 통한 대학생 포교 방안 연구

## -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

이석환 · 김은영

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I. 서언
- II.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교육 현황
  - 1. 개설과 운영
  - 2. 교양교육의 방향
  - 3. 불교 관련 교양교과의 특징
- III.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 1. 불교 관련 교양강의의 특징
  - 2. 불교와 인간 강좌의 현황과 문제점
  - 3. 대학생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
- IV. 결어

## I. 서언

다종교사회인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특정 종교가 없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한국은 종교다원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또한 한국은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 등 세 종교가 강세를 보이고, 기타 종교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sup>2)</sup> 현대 한국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sup>3)</sup> 각 종교들이 신도 확보를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sup>4)</sup> 동시에 탈종교화 현상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은 21세기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는 지난 40년간 감소해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불교 인구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sup>5)</sup> 특히 2005년과 비교하여 2015년 불교 인구는 영·유아층, 아동층, 청소년층, 청년층, 중년층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증가하였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불교의 특징이다.<sup>6)</sup> 하지만 아동층, 청소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감소가 장년층과 노년층의 증가보다 크다. 결국, 중년층 이하 불교인구 감소가 전체 불교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과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동층, 청소년층, 청년층에게 불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불교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찰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포교방식을 넘어 종립대학의 교양 강의를 통한 대학생 포교의 그 실현가능성과 확장성을 이 연구를 통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다행히 대학 교양교육과 불교에 대한 의미 있는 선행 연구가 몇몇 진행된 바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 종교라는 큰 주제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와<sup>7)</sup> 불교종립대학의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sup>8)</sup> 그것이다. 또한 주요 종립대학 및 국립대학을 망라하여 대학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

1) Don Baker(2016), *The Emergence of a Religious Market in Twentieth-Century Korea*,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pp. 8-10.

2) 류성민(2009),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서울: 한국종교학회), p. 26.

3) 정창수, 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집(서울: 한국사회학회), pp. 126-128 ; 은기수 외(2002), 『한국의 인구』(서울: 통계청), pp. 557-586.

4) Don Baker(2016), *The Emergence of a Religious Market in Twentieth-Century Korea*,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5)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6) 최현중(2011), 『한국 종교인구의 변화에 관한 연구』(부천: 서울신학대학교), p. 23.

7) 박선영(2001),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 51-71.

한 연구들도 발표되어 있으며,<sup>9)</sup> 특정 종립대학의 교육과정 내 종교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sup>10)</sup>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전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종립대학 개설강의의 종교교육과 불교교육의 현황 파악이다. 이를 통하여 불교 종립대학별로 교양강의를 통한 종교성 함양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을 일반교양과 필수이수교양, 특히 동국대학교에 개설된 <불교와 인간> 강의를 통해 모색해 볼 것이다.

## II.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교육 현황

### 1. 개설과 운영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대학교는 총 190개교로 그 중 156개교가 사립학교이다.<sup>11)</sup> 그 중 종교계 설립은 86개교로<sup>12)</sup>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있어 종립학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의 형태로 불교계에서 설립한 4년제 종합대학교로는 동국대, 중앙승가대학교, 위덕대, 금강대 등이 있다.<sup>13)</sup> 전체 종교계 사립대에서 약 3.4% 정도의 비율로, 개신교 51개교, 천주교 14개교를 보유한 이웃 종교에 비하여 그 물리적인 숫자는 작으나 고등교육에서 불교를 대표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교육기관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8) 조기룡(2018),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기반 인성교육 교과과정 개선 방향」, 『불교학보』 88(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 317-339.

9) 나권수·윤재근(2019),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6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 119-142; 유성욱(2020),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운영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6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 151-161.

10) 김귀성(2001),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201-227;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p. 135-149.

11)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30/intro.do>)

12) 고병철 외(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세종: 문화체육관광부), p. 194.

13)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 136.

##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불교계 설립 종립 대학교들 가운데 본장에서는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승가대를 제외하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일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동국대(서울/경주), 위덕대, 금강대의 학부 교양교육에 있어 종교(불교) 교육의 현황과 그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대학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불교 종립대학개별의 설립 주체 종단이나 역사와 같은 정성적인 부분은 대학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단과대학이나 재학생 규모 등의 양적인 차이도 인지하는 것이 이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1〉 불교종립대학 일반 현황 비교표

구분		설립종단	개교시기	학부 현황	재학생(2020년 기준)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한불교조계종	1906년	13개 단과대학 1칼리지	13,944명
	경주캠퍼스		(1978년)	8개 단과대학 1칼리지	7,670명
위덕대(경주 소재)		대한불교진각종	1996년	5계열 22학부(과)	2,999명
금강대(논산 소재)		대한불교천태종	2002년	2학부 1칼리지	393명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교종립대학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동국대학교이다. 현재 학부 기준 단과대 규모나 재학생 인원도 가장 큰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재학을 한 학생들의 수가 다른 종단 설립의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 2. 교양교육의 방향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큰 규모로 운영 중인 동국대학교의 경우, 최초의 전신이었던 명진학교(明進學校)는 승려 중심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1930년 혜화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불교과 외에 흥아과(興亞科)를 신설하고, 광복 이후 1946년에 동국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전문부 외에 문학부(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를 설치하면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양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이 시기의 재학생이었던 조지훈과 같은 문인들의 예술 세계에 담긴 불교의 정취는 청년기 종교교육과 불교 포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알려 준다.

현재 동국대에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단과대학인 다르마칼리지(서울)과 파라미터칼리지(경주)가 캠퍼스별로 개설되어 있다. 또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교과를 제외한 종교(불교)와 관련된 교양교과 현황은 아래 <표2>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공통교양(필수)과 일반교양영역 모두에 불교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과 관련된 필수 이수 학점은 최소 4학점이며, 개별 학생의 선택에 따라 7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일반교양 영역은 인문, 사회, 문화예술체육, 융복합 등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다시 한 번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 별로 다채로운 주체의 불교 관련 교과가 분포되어 있는데, 종교학 일반에 대한 주제보다는 불교 관련 교과의 비중이 높다.

<표2> 동국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영역	교과명(시수)	비고
공통교양 (필수)	자아성찰	· 자아와명상1(1) · 자아와명상2(1) · 불교와인간(2)	P/F P/F
	고전과창의융합	·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3)	세미나 5개 강좌 중 선택 가능
일반교양	인문영역	· 만해와불교의 민족운동(3) · 만해와근대지성(3) · 근현대고승열전(3) · 만해의생애와사상(3) · 오리엔탈리즘과불교(3) · 사찰을통해본한국의역사와문화(3) · 불교와스토리텔링(3) · 인도불교이야기(3) · 그리스문학과신화이야기(3) · 현대요가와자기이해(3)	
	사회영역	· 종교와법(3) · 동남아시아와불교문화(3)	
	문화예술체육	· 요가&필라테스(3) · 일본,문학,그리고불교(3)	
	융복합	· 붓다와인공지능(3) · 4차산업혁명시대, 삶의변화와휴머니티(3) · 레트로동아시아의건축공간과 신화(3) · 종교와과학 (3)	

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대한불교진각종에서 1996년에 설립한 위덕대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기관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양관련 별도의 세칙 없이, <학칙> 제8장 제27조(교과목)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불교 관련 교양선택 교과는 개설된 바 없다. 교양필수인 3개 강의는 매 학기마다 개설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명칭이 드러난 교과목도 있지만, 마음공부나 마음수련과 같이 불교의 수행을 사회 일반의 가치와 연결시킨 교과목도 있다.

<표4> 위덕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교과명(시수)	비고
교양필수	· 마음공부(1) · 마음수련(1) · 불교와사회(2)	1학기 및 2학기 모두 개설
교양선택	해당 없음	

대한불교천태종에서 2002년에 개교한 금강대는 로터스칼리지라는 교양을 전담하는 독립된 교양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별도로 독립된 교양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나 <학칙> 제33조(교육과정 편성·이수)에 따라 교양과정은 교양필수과목과 교양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수강편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설된 불교 관련 교과는 모두 3개 강의였다. 특히 1학기는 교양필수 외 교양선택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으며, 편람에 편제되어 교과목 개요는 있으나 실제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설되지 않은 교과가 4개 강의가 있었다. 재학생 규모가 적은 학교 특성상 교양필수는 매학기 개설되지만, 교양선택은 여러 개의 과목이 학기마다 교차 개설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3> 금강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2021년 기준)

구분	교과명(시수)	비고(미개설 교과)
교양필수	· 1학기: 삶과 불교(2) · 2학기: 생활 속의 수행(2)	
교양선택	· 2학기: 불교문화유적 여행(1)	· 전통호흡의 이론과 실제 · 인간과 종교 · 불교와 문화교류 · 동양의 가치와 철학

### 3. 불교 관련 교양교과들의 특징

다음으로 3개 종립대학의 불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들의 개요(교과목 해설)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1개 대학의 개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타 불교종립대학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동국대의 교과들이 종파를 넘어 좀 더 보편적 종교성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sup>14)</sup>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불교 종립대학 불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 개요

구분	교과명	개요(교과목 해설)
동국대	자아와명상1 자아와명상2	자아의 이해와 명상을 통해 진실하고 창조적인 자신의 인간상 확립에 강좌의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적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한다.
	불교와인간	붓다(석존)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 갖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갖춰 실행하는 인간 인격 완성과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 세계 건설에 헌신 노력하도록 가르친다.
	지혜와 자비명작 세미나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이전에 관계로 살아간다. 존재가 있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 존재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의 삶과 오늘의 성취가 있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인연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자비’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 강좌는 첫째, 지혜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한다. 둘째,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 탐색하고 통찰한다. 그리하여 연기적 존재와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덕대	마음공부	미공개
	마음수련	미공개
	불교와사회	미공개
금강대	삶과 불교	이 수업은 불보(佛寶)와 법보(法寶) 그리고 승보(僧寶)의 삼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참모습에 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실천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가는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통찰하고 또한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불교적인 해결책에 대해 학습한다.

14) 미국의 진보적 교육운동의 대표자인 존 듀이(John Dewey)의 『공동신앙(A Common Faith)』에 따르면 ‘종교(religion)’와 ‘종교적인(religious)’ 것은 다르다(Dewey 1966, 87) 박선영은 존 듀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종교교육의 유형은 대체로 특정한 종파의 교육을 뜻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 여러 특정 종교들을 포함하여 종교 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특정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신념체계가 아니라 원숙한 인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종교성 즉 궁극적 가치지향성을 교육하는 ‘종교적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us)’이 그것이다. 박선영(2006), 『불교와 교육』(서울: 학지사), pp. 266-267.

생활 속의 수행	이 수업은 불교의 수행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음주송이다.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명하는 염불수행이다. 이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배운다. 또한 경전을 독송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 그리고 『법화경』의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을 독송하는 법을 배운다. 이와 더불어 천태지관 가운데 5회의 수행에 대해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돌아보고 발전시키게 한다.
----------	--

즉,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학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불교 관련 교과야 말로 이웃종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인 학생들에게 세계 보편 종교로서의 불교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 포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학부제 실시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이전의 <불교학개론> 등의 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된 <자아와명상 I>, <자아와명상 II>, 그리고 <불교와인간>은 교양교육기관의 유무, 제도의 개선, 교과개선과 상관없이 교양필수과목으로 2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운영되었다.<sup>15)</sup> 그동안 공통교양 영역의 불교 관련 교과목이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 정규 강의를 통한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다. <자아와명상>은 매학기 50~70개(수업당 정원 40명), <불교와인간>은 30개 내외(수업당 정원 60명)의 강의를 개설된다. 이 수업들의 주요대상은 저학년인 1학년인데, 불교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종교교양이자 불교교육이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일종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자아와명상> 교과는 교강사들로 구성된 교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의 방법, 준비물, 성적 평가, 과제물 등에 대한 공통 개요를 정리하고, 15주의 학사 일정에 맞춘 주차별 강의내용을 확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교재를 개발하여 2019년부터 도입하였다.<sup>16)</sup>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도 공통교양 교재개발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교와인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2021년 발간하였다.<sup>17)</sup>

앞서 살펴본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종교) 관련 교양교과의 현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종립대학들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불교 관련 이론과 수행 강의를 교양필

15)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p. 137.  
 16)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는 『자아와 명상 1 워크북』(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 및 『자아와 명상 2 워크북』(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9)을 편찬하였다.  
 17)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불교입문』(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이 교재 출간 이전에는 1986년 초판이 발행된 『불교학개론』(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와 1988년에 발행된 『불교와 인간』(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등이 교재로 사용되었다.



수 영역에 편제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최소 2~3과목(1주당 총 4시수 수강)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그 중 동국대는 명작세미나 영역에도 불교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학생 선택에 따라 최대 7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둘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운영상의 제반 문제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교양선택 과목의 수와 다양성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불교 교양필수 교과를 위한 교재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시도도 교육의 역사와 경험이 가장 오래 축적된 동국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III.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

앞서 불교계 종립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불교교육과 관련되어 강의가 개설된 교과목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각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교양과정에 적용한 사례로서 대부분의 종교계 종립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18)</sup>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불교계 종립대학의 교양과정에서 불교 관련 교양수업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불교교육과 포교방법으로서 교양강의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위한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과정의 현황과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불교 관련 교양강의의 특징

제2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불교계의 4년제 종합대학의 불교 관련 교양강의는 교양필수 영역과 일반교양으로 양분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불교 관련 교양강의가 가장 많이 설강된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강의의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승려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한 교육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1학년의 과목을 중심으로 교양 교과목이 설강되어 있으며, 다른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공기초의 교육보다는 교양을 중심으로 총 21과목의 강의가 개설<sup>19)</sup>되어 있다. 이는 종교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설립 목표에 상

18) 2021년 10월 29일 현재 종교계에서 설립된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의 교양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교육목적과 교양교과목은 각 대학 홈페이지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교과과정 또는 대학요람의 교과과정 부분 참조.)

응하는 것으로서 승려의 기본자질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중앙승가대학교의 불교 관련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① 불교학을 위한 어학, ② 기초적인 불교 교학과 의례 ③ 불교사 및 역사적 지식, ④ 불교학의 응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위의를 교육하는 부분이 교양필수 과목으로, 불교 관련 지식과 사회적 활용에 대한 부분이 교양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sup>20)</sup> 있다. 이러한 교과목 구성은 중앙승가대학교만의 특징으로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수성을 유추할 수 있다.

승려양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중앙승가대학교 이외의 불교종립 4년제 대학은 위덕대학교와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이다. 이러한 일반 4년제 종립대학의 불교 관련 교양교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의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풍부함을 알 수 있다.<sup>21)</sup> 특히 교양필수 과목은 매학기 강의가 개설되지만, 동국대학교를 제외한 금강대학교와 위덕대학교에서는 교양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다수의 교과목을 교차하여 개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

19) 중앙승가대학교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참조.(2021년 10월 29일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교육과정 수업일람([https://admission.sangha.ac.kr/SANGHA/?ACT=EDU\\_DEGREE1&FOR&FOR](https://admission.sangha.ac.kr/SANGHA/?ACT=EDU_DEGREE1&FOR&FOR)))

20)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양교과목을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목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교과목명	비 고
교양필수	대승불교의 역사와 전개	불교교학
	좌선의 이해와 실천 1	선학
	좌선의 이해와 실천 2	
	불교의식의 이해와 연습 1	불교의례
	불교의식의 이해와 연습 2	
	불교의례의 구조와 이해	
교양선택	불교의 교리와 역사	불교교학 / 불교사학
	불교문화재의 첫걸음	불교사학
	불교생활 문화의 이해	응용불교
	불교문화치유명상	
	불교복지사상사	
	불교와 현대윤리	
	불교사회학	
	종교와 사회	종교학
	종교의 이해	
	영문불전강독 1	어학
	영문불전강독 2	
	기초범어 1	
	기초범어 2	
	기초팔리어 1	
기초팔리어 2		

21) 제 II 장의 <표 3>, <표 4>, <표 5> 참조

육목표가 불교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의 인원과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동국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불교 관련 교양교과목이 가장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교양필수 과목은 불교 기초교리인 <불교와 인간>, 불교수행인 <자아와 명상>, 응용불교라고 볼 수 있는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이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 명작세미나>는 세계명작세미나의 5개 과목<sup>22)</sup>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교양필수로서 수강의 당위성은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교양으로서의 불교 관련 교과목은 인문사회, 문화예술, 융복합의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불교계 4년제 종립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졸업을 위한 필수 교양으로서 종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교 관련 교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둘째, 유사한 교육목표로 설립되었어도 학교의 특성과 구성원의 인원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 셋째, 승려양성 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의 불교교양교육 커리큘럼은 세분화되어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동국대학교의 교과목이 지식의 함양과 건전한 사회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교양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 2. 불교와 인간 강좌의 현황과 문제점

교양교육은 대학생이 처음 접하는 고등교육으로서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교양교육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 관련 교과목, 특히 불교 관련 교양교과목을 대학생 포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절에서는 대학생의 포교방법으로 불교 관련 교양교육을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 과목을 중심으로 현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 및 포교방법론으로서 교양과목의 활용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계 종립 고등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은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두 과목이다. <자아와 명상>은 1학점 2과목으로 구성되어 2학기에 걸쳐 수강<sup>24)</sup>해야 하지만, <불교와 인간>은 1회 수강으로 졸업요건이 완료된다. 두 과목 모두 매학기 설

22)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의 공통교양 교육과정의 세계명작세미나는 지혜와 자비 명작 세미나,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경제와 사회 명작 세미나, 자연과 기술 명작 세미나,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의 5가지 가운데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3) 제Ⅱ장의 <표 2> 동국대학교 종교(불교) 교양교과 현황 참조.

강되지만, 졸업을 위한 필수교양으로서 두 과목의 차이점은 성적평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아와 명상>은 절대평가로서 평점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 Pass / Fail로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불교와 인간>은 학점에 따른 편차가 있는 절대평가<sup>25)</sup>이다. 이로 인해 교양필수 과목 수강생들의 강의만족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와 인간> 과목은 2021년 2학기 현재 31개의 강좌가 설강<sup>26)</sup>되어 있으며, 강의는 전임교원과 강사가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불교와 인간> 과목의 강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불교와 인간 교과목 현황<sup>27)</sup>>

	구분	교과목수	기타
강의 담당자	전임교원	2	1명이 2과목 담당
	강사	27	1명이 2과목 담당
담당자의 전공	불교학	26	2명이 2과목 담당
	인도철학	2	
	행정학	1	

<표 6>을 살펴보면 <불교와 인간> 과목의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률은 6.5%, 강사는 93.5%이다. 이는 현재 전임교원의 담당 강의시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도 있지만, 신진연구자에게 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의 배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 담당자의 전공<sup>28)</sup>은 불교학 전공자가 90.5%, 인도철학 전공자 6.5%, 행정학 전공자 3%로 불교학전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불교와 인간> 과목의 특성으로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인도철학과 불교교학의 각 전공자들이 폭넓게 배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불교와 인간> 과목은 교양필수 과목의 강의방법을 통일하기 위해 2021학년 1학기에 강의통일안 계획을 공지하고 2021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의교재를 바탕으로 표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후 표준 강의계획서<sup>29)</sup>를 기반으로 표준강의교안을 제작하여

24) 각주 15) 참조.

25) 기존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서 학점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따라서 평가방법은 과거의 상대평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6) 매학기 30개 내외의 강좌가 설강되며, 일반적으로 31-32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27) 2021년 2학기 개설된 교과목 기준임.

28) 최종학위 기준으로서 행정학 전공자는 학부전공이 인도철학임.

29) [부록] 참조.

수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통일 방법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강사 개인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가 개인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일하여 전반적인 강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강의의 주체인 불교대학과 강의 제공자인 학교의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의표준안과 강의교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강의를 획일화하여 강사 개인의 강의 목표와 강의 전략에 맞지 않는다. 둘째, 강의 통일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일부 강사만 참여하여 강의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강사들에게 배포된 강의교안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안이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강의교재의 내용이 부실하게 반영되어 있다.<sup>30)</sup>

이러한 불교와 인간 강의통일안의 현황을 미루어 보면, 강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일부의 의견만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면 강의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함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강의 통일을 빌미로 획일적인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sup>31)</sup>

### 3. 대학생 포교방법으로서의 교양교육

앞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 강좌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교 관련 교양필수 과목을 기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교방법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고등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기 전의 일반인을 위한 불교포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양필수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강의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과 종교 관련 교과목이라는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30) 이외에도 학기 초에 수강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새로운 강의교재를 주교재로 제공함으로써 교재 부족 사태를 일으켜 학생들과 강사에게 혼란을 주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31) 강의를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교양필수 교과목의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타종교인과 학생 개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거나 배척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sup>32)</sup> 물론 강의를 통해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인 배려와 중립성 유지를 통해 종교의식을 강압적으로 주입하거나 특정 종교만을 강조하는 행위<sup>33)34)</sup>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의 교리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중심이 되지 않고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

교양필수 교과목은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종교적인 측면과 종교사상 교육을 다루게 되는 교양필수 과목은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지닌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역사와 문화이다.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으며, 유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지식과 관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종교교육이라는 반발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종교교육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불교는 인간중심주의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한 무한경쟁과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불교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변화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특히 불교의 연기법과 업사상은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주고 개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상적 기반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근거로서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32) 수강생들과의 대화와 시험답안을 통해 종교와 불교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신의 종교에서 받은 교육에 의해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교양과목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33) 2019년 1학기의 동국대학교 불교와 인간 강의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나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학교에서는 강의담당자를 교체하였으나 사범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2019년 7월 3일 불교포커스 <동국대 학생들, 세월호 망언교수 규탄 나선다>, 7월 9일 불교포커스 <동국대 교수 세월호 망언사태,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2019년 7월 10일 연합뉴스 <불교도만 살아...세월호 망언으로 교내 갈등> 등의 기사 참조)

34) 이러한 행위를 개별 강사의 문제로 치부하여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지만 공식적인 강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강사의 자질이 아닌 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적극적인 포교전략으로서 불교 관련 교양강의를 확대해야 한다.

종립학교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일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종교교육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교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운용되는 불교 관련 교양교육은 교학과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대사회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불교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대중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sup>35)</sup>

다섯째, 강의자의 재교육과 강의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문제인 특정 종교를 강조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학교 교육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어 강의에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강사의 재교육과 강의경험의 공유를 통해 강의윤리를 재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교 관련 교양강의의 당위성을 제 공하여야 한다.

불교는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어떠한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이다.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은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불교계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불교라는 종교의 이상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관련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불교에 호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IV. 결어

본 논문은 불교 종립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교과목인 <불교와 인간>을 통해 강의의 효율성과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불교계 4년제 종립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 대부분의 종립 대학에서는 졸업 필수 요건으로 불교 관련 이론과 수행 강의를 교양필수로 개설하였지만, ② 소규

35) 예를 들어 문화예술로 보는 불교, 시민윤리로서의 불교, 사회이슈와 불교를 접목시키는 토론수업이나 발표수업을 통해 불교가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모 대학은 운영상의 문제로 교양선택 과목의 개설이 한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③ 동국대학교 교양관련 교과목은 보편적 종교성과 지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였다.

제3장에서는 불교 관련 교양과목의 현황을 중앙승가대학교과 동국대학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종교인 양성 기관으로서 승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불교학과 관련한 기초지식과 활용, 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동국대학교는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설강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후 동국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 <불교와 인간>을 중심으로 강의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현재 <불교와 인간>은 강의통일안을 마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① 강의가 획일화 될 수 있다는 점, ② 강사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③ 강의교안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의 편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교전략의 방법론으로서 강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① 타종교인과 학생의 배려, ②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의의 당위성 확보, ③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불교윤리 강의를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④ 불교 관련 강의를 확대하고, ⑤ 강사의 재교육과 강의경험 공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생의 강의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강사의 강의만족도 조사와 강의 개선방안 협의, 강의 표준화 작업에 따른 강사와 학생의 의견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강의를 중심으로 되어 경주캠퍼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불교와 인간>이라는 강좌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교양필수 과목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를 위한 시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포교를 위해 대학생이라는 대상자의 교양교육을 통한 포교전략을 위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가 <불교와 인간> 강의의 대표성을 떨 수 없다는 한계는 지니고 있지만, 교양필수 과목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확립시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립대학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기반으로 한 종교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돈구(2005), 『종교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건호(2010), 「윌리엄 페이든의 비교종교학과 '새로운 비교론」, 『종교문화연구』 14, 경기: 한신인문학연구소.
- 고병철 외(2018),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고시용(2020), 「교양교육으로서 원불교의 종교교육-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6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경희(1996),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30.
- 김귀성(2001),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선아(2009), 「종교교과를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 모형 탐구: J. M. Keller의 ARCS 동기설계 모델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교육정보』 24,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김선정(2009),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종교별 분반 구성과 교육성과 - 연세대학교의 성서 교육 사례 연구 -」, 『기독교교육정보』 22,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 김성연(2013), 「근대 불교의 종교 비교 방법을 통한 정체성 인식」, 『한국사상사학』 45, 서울: 한국사상사학회.
- 김성희(2012), 「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한 토론 교육: 서강대 팀티칭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6(1),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 김영래(2019), 『인성교육의 담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혜교육 탐색』, 서울: 학지사.
- 김용표(2002), 『불교와 종교철학-공사상으로 본 세계종교』,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김용표(2010),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정우서적.
-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중서(2016), 「종교교육의 전개와 ‘인성교육’적 함의」, 『문학과 종교』 21, 경기: 한국문학과종교학회.
- 나권수, 윤재근(2019), 「종교문맹률의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6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86), 『불교학개론』,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1998), 『불교와 인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불교입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류성민(2009),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 서울: 한국종교학회.
- 박병기(2013),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대회자료집』.
- 박선영(2001),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박선영(2006), 『불교와 교육』, 서울: 학지사.

## 불교 증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 박일영(2001), 「대학에서의 종교교양교육-가톨릭대학교의 현황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배상훈(2012),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백승수(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 성주현(2001),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천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성해영(2015),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손동현(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 『교양교육연구』 3(2),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 손동현(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대책」, 『교양교육연구』 3,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 손동현(201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손원영(2001),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송경오(2007),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송유진(2009), 「대학 발전의 미래 가치로서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철학』 39, 경북: 한국교육철학회.
- 유성욱(2020),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종교 교과 운영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학연구』 6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윤승용(2015), 「한국종교, 30년간의 변화와 종교사적 과제」, 『종교문화비평』 27, 서울: 종교문화비평학회.
- 윤이흠(1991),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적 다종교 상황」, 『한국종교연구』 1.
- 윤재근(2007),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윤재근(2010),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 34,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윤재근(2012), 「대순사상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신종교연구』 27, 경기: 한국신종교학회.
- 은기수 외(2002), 『한국의 인구』. 서울: 통계청.
- 이세현(2001), 「유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 이숙정(2012),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2)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 정창수, 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 조기룡(2018),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기반 인성교육 교과과정 개선 방향」, 『불교학보』 88,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최현중(2011), 『한국 종교인구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 동국대학교(2021), <2021학년도 교과과정>, 서울: 동국대학교.
- 금강대학교(2021), <2021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논산: 금강대학교.
- 금강대학교(2021), <2021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논산: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2021), <2021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경주: 위덕대학교.

위덕대학교(2021), <2021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경주: 위덕대학교.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

금강대학교, 대학소개(<https://www.ggu.ac.kr/main>)

계명대학교, 학교소개(<https://www.kmu.ac.kr/uni/main/main.jsp>)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안내(<https://www.duksung.ac.kr/main.do>)

동국대학교, 대학안내(<http://www.dongguk.edu/mbs/kr/index.jsp>)

서강대학교, 학교소개(<https://www.sogang.ac.kr/index.do>)

연세대학교, 연세소개(<https://www.yonsei.ac.kr/sc/>)

위덕대학교, 대학소개(<https://www.uu.ac.kr/home/>)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소개(<https://admission.sangha.ac.kr/SANGHA/>)

Baker, Don(2016), The Emergence of a Religious Market in Twentieth-Century Korea,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7-39.

Dewey, John(1966), *Democracy and Education*. NY: The Free Press.

Bruya, B. & Ardel, M.(2018), Wisdom can be taught: A proof of concept study for fostering wisdom in the classroom, *Learning and Instruction* 58, Elsevier.

불교포커스, 2019.07.03. <동국대학 학생들, 세월호 망언교수 규탄 나선다.>

(<http://m.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12>)

불교포커스, 2019.07.09. <동국대 교수 세월호 망언사태,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http://m.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34>)

연합뉴스, 2019.07.10. <‘불교도만 살아’... 세월호 망언으로 교내 갈등>

(<https://m.yna.co.kr/view/MYH20190710002100038?section=video/all>)

[부록] 동국대학교 “불교와인간” 표준 강의계획서(2021학년도 기준)

강의계획서(Syllabus)

교과목명 (Course Title)		불교와 인간					
이수구분 (Course Classification)		교양필수	학점(Credit)		2.0		
강의개요 (Course Description)		<p>불교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苦]을 통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종교이다.</p> <p>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며,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다룬다.</p>					
강의목표 (Course Objectives)		<p>첫째,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해한다.</p> <p>둘째, 인도-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 전통이 갖는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한다.</p> <p>셋째,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문학적 안목을 함양한다.</p> <p>넷째, 현대사회와 나의 일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p>					
성적평가 (Grading)	요소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기타	합계
	비율(%)	25	30	30	10	5	100%
	만점	25	30	30	10	5	100점
요소 (Category)		평가방법(Assessment)			강의목표와의 연관성 (Relevance to Course Objective)		
출석 (Attendance)							
중간고사 (Midterm Exams)							
기말고사 (Final Exams)							
과제 (Homework)							
기타							
강의구조 (Course Structure)		강의구성구분(Structure)				비율(Percentage)	
		강의(Lecture)				80	
		토론발표(Discussion/Presentation)				20	

	구분 (Type)	교재명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출판년도 (Published Date)
교재 및 참고서적 (Textbooks & Reference books)	주교재	불교입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부교재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필원, 이자랑	서울: 민족사	2016
	부교재	불교	데미언 키온 저, 고승학 역	파주: 교유서가	2020
기타사항 (자유기술)	* 강의는 PPT를 가지고 진행한다. (단, PPT 파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F학점으로 처리한다.				

## 주별 강의 일정(Class Schedule)

주 (Week)	강의내용 (Class Topic & Contents)	수업활동유형 (Class Type)	비고
1	강의소개 수업 목적, 수업 진행 방법, 성적 평가 방법 등을 공지한다.	강의	
2	[현대적 시각으로 다가가기 - 불교와 종교] 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가 갖는 고유한 종교적 가치를 이해한다.	강의+토론	
3	[불교가 탄생한 신비한 나라 - 인도의 종교와 철학] 인도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을 살펴봄으로써 불교가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창시되었는지를 이해한다.	강의+토론	
4	[붓다의 삶을 들여다보자 - 붓다의 일생] 석가모니의 일생을 살펴보고,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5	[나라마다 다른 색을 입다 - 세계의 불교] 불교는 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구로도 전파되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를 만나봄으로써 불교의 세계성을 확인한다.	강의+토론	
6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 연기] 불교는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통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근본 이론인 동시에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이론인 연기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7	[내 삶의 행복추구권 - 사성제] 고통과 그 해결을 다루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8	중간고사	시험	
9	[잠깐 나를 쉬어가는 시간 - 명상] 자아 성찰과 자기 변혁의 기술인 명상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토론	
10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 삼법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또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은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연기의 개념에 입각하여 삼법인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11	[나와 타인을 위해 사는 삶 - 보살과 육바라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上求菩提 下化衆生] 결심을 한 존재인 대승 보살의 개념과, 해탈을 위한 대승불교의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의 개념을 이해한다.	강의+토론	
12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펼치다 - 중국불교] 인도불교를 창조적으로 변용한 중국불교를 살펴본다.	강의+토론	

13	[역사와 전통을 만든다 - 한국불교] 중국불교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독자적 사유를 발전시킨 한국불교를 살펴본다.	강의+토론	
14	[불교를 생각함] 한 학기 수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 발표, 토론을 병행한다.	강의+토론	
15	기말고사	시험	

# 「불교종립대학 교양교과를 통한 대학생 포교 방안 연구」 논평

정운스님(신명희)\_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1. 논평에 앞서

불교학, 특히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각자 공부해온 전공이나 분야 등이 제각각이다. 곧 학문에는 옳고 그름은 없다. 단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글로 표현할 뿐이다. 이 논문을 통해 논평자는 다시 한번 불교 교육에 관한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고를 읽게 되어 논자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회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중학 학회에 감사드린다.

## 2. 논문의 줄거리

Ⅱ장에서는 불교종립대학의 현황을 언급하고 있다. 각 동국대·위덕대·금강대 종립대학의 규모를 살펴보고, 이어서 불교 교양 필수 선택 과목의 개설과목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국대의 건학 이념에 맞춘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과목의 역사 및 현재의 제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교양강의를 통한 포교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앙승가대학교와 동국대·위덕대·금강대학 등의 교양과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불교와 인간> 강좌의 학점과 교수·강의 교재·강의 교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세 번째로 대학생 포교방법상에 있어서 교양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측의 강의안과 학생들의 강의만족도·강의 방법 등에 언급하고 있다. 특히 Ⅲ-3절에서는 논자로서 종립학교 필수불교과목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논자와 논평자의 同床異夢 · 同床同夢 및 질문 사항

① 본고에서 논자는 p.3 ‘종립 대학교들 가운데 본장에서는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승가대...’라고 하였다.

→ 즉 승려를 ‘聖職者’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승려는 직업을 갖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 재세在世 이래로 승려는 출가자로서 ‘수행자修行者’ 혹은 ‘수도자修道者’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표현이라고 본다.

② 논자께서는 p.12 “종교의 교리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중심이 되지 않고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 논자께서는 재가학생들에게 역사적 문화가 바탕 된 당위성이라고 하면서, 본고에서 이런 언급을 두어 차례 언급하고 있다. 물론 불교의 보편성을 강조키 위함이라고 보지만, ‘왜 불교를 역사·문화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가?’이다. 불교는 석존께서 정신적인 고(苦)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한 정각正覺으로부터 시작된다. 교과목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인간적인 접근에서 주제를 찾고 방향을 찾는 강의 교안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논자께서 어떤 답변을 하셔도 된다.

③ p.12 “강사의 재교육과 강의경험의 공유를 통해 강의윤리를 재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교 관련 교양강의의 당위성을 제공하여야 한다.”하였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자 의견에 동의한다. 서로 강의 내용이나 강의 테크닉 등을 강사들끼리 의견 교환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년 전에 <자아와 명상>은 이런 일을 많이 하였다.

☞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는가? 그렇다면 논자께서 불교 강의하는 선생의 자질資質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II 장-2 교양교육의 방향[pp.5~7] 절,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학에 대해 보기로 한다. 진각종 위덕대학[경상북도 경주 소재]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천태종 금강대학[충청남도 논산]은 전원 100%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 재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르다. 즉 동국대학의 필수학점인 <자아와 명상>이나 <불교와 인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금강대학이나 위덕대의 학생들과는 분위기가 맞지 않다.1)

→ <자아와 명상>이나 <불교와 인간>은 동국대 재학생들에게는 원치 않는 과목을 수강토록 한다는 점이다.2) 이에 이 논문이 이런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포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논자에게서 논문에 다루고 있지만, 간단히 답변을 하였으면 한다.

#### 4. 논문 표기 및 논평자의 군더더기 잔소리

① II장과 III장의 논문 내용이 정확한 선線이 구별되지 않는다. 내용상 중복되며, 상호 연결성이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다.

② p.2: 마지막 줄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진전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본고가 선행 연구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주) 처리에서 90% 불교 학회지는 페이지인 ‘p’를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다.

④ 교과목인 경우는 논문에서 <불교와 인간> 혹은 《불교와 인간》 등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본다. 이 논문은 <불교와 인간>과 불교와 인간이 혼재되어 있다.

⑤ 참고문헌에서 (주) 처리로 참고하지 않은 문헌은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 5. 논평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다면.....

① 이 논문의 포커스가 정확치 않은 것 같다.

첫째는 논문이 여러 불교 종립학교 교양과목 교과목을 위한 포럼인지?,

둘째는 종립학교 재학생들[타 종교인]을 위한 포교 방법론인지가 분명치 않다. 논자는 각 대학과 교과목 설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이번 중학 학회의 의도는 후자에 속하며, 논자

1) 동국대학의 재학생 스님들은 <자아와 명상> 과목은 수강하지 않음.

2) 이런 경우 대학이나 학생이 <불교와 인간> 과목에 대해 수강하기 전의 만족도와 강의를 다 들어 마친 뒤의 만족도에 대해 한번쯤 껍질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 그렇게 제목을 표기하였다.

② 종립학교 대학을 열거하는 가운데 중앙승가대학[경기도 김포]은 승려들의 기본교육기관이다. 정식 대학 과목과 사찰승가대학[강원]의 교과목이 절충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함께 언급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본다.

③ 다른 나라의 종립학교에서의 교과목 개편 현황이나 혹은 우리나라 카톨릭 재단과 기독교 재단 학교, 유교 재단학교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 서양의 미국이나 유럽 종립학교의 종교 교과편 강좌<sup>3)</sup>
- 일본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 교양과목<sup>4)</sup>
- 우리나라 서강대학[카톨릭 재단]·이화여대나 연세대[기독교 재단]·성균관대학[유교 재단]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종교 관련 교양과목

3) 논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4) 불교 종파는 13개 계통의 180파에 이른다. 천태계가 20파, 진언계가 43파, 정토계가 25파, 선종계가 23파, 일련(법화)종계가 36파, 나라불교계가 6파, 기타가 27개 파 등……. 이 중 전국에 4천개 이상의 말사를 가지고 있는 종파는 천태·진언·일련·임제·정토진종 등 8개 종파이다. 한편 불교 종립 대학은 4년제 대학만 해도 駒澤·大正·龍谷 등 10여개가 넘고, 2년제 단기 대학도 많다. 이 가운데 천태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타이쇼대학(大正大學)이다[천태종, 진언종, 정토종의 3종파가 함께 설립한 대학]. 본 대학은 1885년 천태종 중학림(中學林)으로 설립되어, 1925년 불교연합대학을 제창하던 천태종, 진언종(智山派, 豊山派), 정토종의 5인의 대표에 의해 1926년 현재의 타이쇼대학이 되었다. 현재 일본에 두 개의 캠퍼스(巢鴨, 埼玉)를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4,920명 정도이다. 불교학부에는 불교학코스, 국제교양코스, 중학코스를 두어 국제교양코스에서는 불교와 일본문화가 결합된 차도茶道·서도書道·화도花道 등을 교육하여 불교를 경전이나 사상만이 아닌 문화적인 면으로 발전시켜 교육하고 있다. 타이쇼대학은 불교계 연합대학으로서 한 종파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종파의 불교를 두루 교육하고 있으며, 각 종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까지 교육하고 있어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입학하고 있다. / 일련종은 立正大學·身延山大學·文教大學·日本福祉大學 4개 대학이 있다. 일련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릿쇼대학(立正大學)이다. 본 대학은 1580년 승려교육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가 1924년 현재의 릿쇼대학이 되었다. 현재 일본 내에 두 개의 캠퍼스(品川, 熊谷)를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학부10,334명, 대학원 200여명 가량이다. 이 대학의 불교학과에서는 다른 종교계 대학과 같이 불교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 연구하여 종파에만 치우치지 않게 교육하고 있다.



# 불교종립대학의 ‘자아와 명상’ 교양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 - 핵심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휴담스님(안효기) · 원상스님(김근행)  
동국대 강사 · 동국대 강사

1. 시작하며 -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아와 명상’ 강좌의 역할
2. ‘자아와 명상’ 강좌의 교육적 맥락
  - 1) 종교교양교육
  - 2) 인성교육
3. 핵심역량 교육과 ‘자아와 명상’ 강좌
  - 1) 핵심역량 기반 교육
  - 2) 핵심역량 기반 ‘자아와 명상’ 강좌의 문제점
4. 핵심역량 기반 ‘자아와 명상’ 강좌의 개선방안
5. 맺는말

## 1. 시작하며

### -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아와 명상’ 강좌의 역할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종립대학은 대부분 각 종단의 고유한 종교적 건학이념을 선언한다. 건학이념에는 학교 고유의 종교적 이념과 교육적 이념이 내포되어 있어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립종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대학의 교육을 통해 각 종단의 고유한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대학교는 2020년 기준 총 191개교이며 그중 156개교가 사립대학이다.<sup>1)</sup> 이들 중 종립대학이 86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계 종립대학이 7개교(원불교계 2개교 포함), 기독교계 종립대학 75개교(개신교계 61개교, 천주교계 14개교), 기타 4개교이다. 불교계에 비해 기독교계 종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학과 더불어 학생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포교의 기회와 장이 많아지고 종단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영향은 이미 2021년 문화관광부 종교현황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20대(19~29세) 비종교인의 종교 선호도를 보면, 불교 11%, 천주교 14%, 개신교 19%, 없음 56%를 점하고 있다. 20대의 선호도는 불교보다 개신교, 천주교 순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연령대에서 불교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불교 20%, 개신교 6%, 천주교 13%, 없음 61%). 불교에 비해 종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대학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은 종단의 미래 존망이 달려 있는 교육사업임에 틀림없다.

불교의 건학이념 구현활동은 구체적으로 기구조직, 수업, 불교 관련 학과와 연구소, 교내행사, 신행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sup>2)</sup>, 건학이념 구현 교과수업은 불교학 전공과목을 제외고는 모두 교양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들 중 대표적인 과목으로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이하 ‘자명’이라 칭함)1과 2가 있다. 불교와 인간은 불교교리가 강좌의 주된 내용이고(2학점), 자명 1과 자명2는 선명상<sup>3)</sup>의 이론 강의와 실습이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선명상

1)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https://www.academyinfo.go.kr/intro/intro0330/intro.do>

2) 묘주(1993), 179.

3) 본고에서 선명상이란 불교색이 제거된 마인드풀니스 명상과 구별하여 불교경전의 전거를 둔 초기선과 대승선을 의미한다. 서양에서의 명상(meditation)은 주로 남방선을 포함한 초기불교의 선에서 불교적 요소나 색채를 제거한 명상 또는 타종교의 명상을 말한다. 오히려 정통 불교 명상보다 이런 명상들이 서구에서나 국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구의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 외의 다른 종교적 색채와 결합되면 다른 종교의 명상이

강좌인 자명(1, 2) 교과에 한하여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명 교과는 다음과 같은 동국대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라 고유한 역할을 담당한다.

건학이념 :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으로 한다.”

교육목적 :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건학이념의 구현은 위와 같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국대는 교육목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화쟁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동국대의 건학과 교육의 바탕이 된 불교정신이란 아래와 같은 붓다의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라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라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 (중략) ...”<sup>4)</sup>

라는 붓다의 전법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교교육은 모든 생명체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활동인 것이다.<sup>5)</sup> 붓다가 실천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은 2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불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상구보리는 수행으로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고 하화중생은 체득한 지혜로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를 실천함을 의미한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정신의 근간을 이룬다. 지혜와 자비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붓다가 실천한 선명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지혜와 자비를 개발

---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신교와 천주교 신도들이 불교신도들 보다 명상을 선호한다는 조사가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선명상’을 사용한다.

4) Mv. 20-21. ; 전재성 역(2014), 『울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 123.

5) 박선영(1998), 115-116.

하고 화쟁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자명 교과과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1997년 IMF 이후 양극화 사회가 심화된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다. 이들은 소위 디지털 원주민들이며 인문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공 외의 수업에 거부감이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sup>6)</sup> 앞의 종교현황 자료가 말해주듯이 20대의 대다수가 무교이며, 또한 2021년 2학기 자명 수강생들의 종교현황 조사(한 개의 강좌에서 6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약 83%(나머지는 불교 3%, 개신교 8%, 천주교 5%)가 무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세대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통 종교를 싫어하거나 무관심을 시사한다. 한편, 종교 선호도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불교보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47%, 없음 39%, 개신교 6%, 천주교 6% 순으로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학 입학 후 불교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수강한 후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불교교양 교과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명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종교교양 교과이며, 또한 자아성찰 영역에 속하는 인성교육 교과<sup>7)</sup>이기도 하다. 현재 동국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역량은 OECD의 교육프로젝트(1997~2005)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 결과 공교육에 역량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함께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역량 교육을 도입한 대학은 대학 특성에 따라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전공과 교양을 포함한 모든 교과가 핵심역량 중심으로 편성되며, 핵심역량의 향상을 중심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명은 교양 6대 핵심역량 중 자기개발 및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과 연계된 교과이다. 본고의 주제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하면 선명상법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까? 라는 논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선명상법들이 어떻게 핵심역량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자료,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은 곧 학생들 개인의 미래 삶을 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선명상 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은 교수법, 수강생들의 특성,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논의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선명상 강좌의 핵

---

6) 정귀연(2019), 38-19.

7) 조기룡(2019), 320.



심역량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본고의 목적은 자명 교과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강의 내용(교재) 구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선명상 강좌의 교육적 맥락을 살펴보고, 선명상 강좌의 개선방안으로 사회·정서·인성교육이 통합된 SEE Learning을 참고하여 선명상방법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 2 '자아와 명상' 강좌의 교육적 맥락

### 1) 종교교양교육

자명교과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불교 교양필수 교과이다. 종교와 교양교육이 혼재된 선명상 강좌는 어떤 교육적 맥락에서 강의되어야 할까? 2021년도 교과과정에 따르면 공통교양인 자명(1, 2)은 “자아의 이해와 명상을 통해 진실하고 창조적인 자신의 인간상 확립에 강좌의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적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한다.”라고 소개되어있다. 다시 말해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진실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강좌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양’이라는 말은 라틴어 경작을 뜻하는 cultura에서 온 영어 culture를 번역한 것으로 culture는 원래 생명을 지닌 자연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며 사육하는 사람의 작용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원래 경작을 뜻하는 culture가 오늘날 경작, 문화, 교양, 도야 등으로 번역하게 된 것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B.C. 106-43)가 경작을 “마음의 경작”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sup>8)</sup> 불교에서는 마음 닦는 수행(修心) 또는 마음공부를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흔한 비유이다. 그렇다면 교양교육의 본질은 마음밭을 경작하는 법, 마음닦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명상 이론과 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명상 강좌는 교양교육의 본질과 잘 어울리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대체로 특정한 종파의 교육을 뜻하는 ‘종교의 교육’, 여러 특정 종교들을 포함하여 종교 일반의 본질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 그리고 특정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신념체계가 아니라 원숙한 인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8) 박선영(2001), 53.

종교성 즉 궁극적 가치 지향성을 교육하는 ‘종교적 교육’이다. ‘종교에 관한 교육’은 종교성을 함양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나 학습자에게 종교성을 지향하는 건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교육은 건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성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데에서 그 진가가 나타난다. ‘종교에 관한 교육’과 ‘종교적 교육’은 특정한 종교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교육이 금지된 국·공립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며 또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9)</sup> 첫 번째 유형은 상대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향함에서 불철저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 자체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며 종교에 관한 객관적 중립적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지고의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종교의 이상 세계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 형성을 위한 종교교육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10)</sup> 선명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명 교과는 ‘종교적 교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건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격교육 또는 인성교육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을 통해 불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원광대는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의 하위범주로 설정하지 않고 교양교육으로서 지향하고 있다.<sup>11)</sup> 고시용(2020)에 의하면, 교양교육의 핵심은 ‘개인을 고결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 ‘대학 졸업 이후 스스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비전을 개발하는 것’,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에 있어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측면을 배양하는 것’, ‘문명 전환기의 변화가 유발하는 새로운 다양성과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능력뿐 아니라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것’<sup>12)</sup>임을 역설한다. 원광대의 종교교양은 고결한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과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위의 종교적 교육에 해당한다.

## 2) 인성교육

최근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 기업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의 경제자문기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종교교육’ 항 참조. <http://encykorea.aks.ac.kr>

10) 송동현(2020), 16-17.

11) 고시용(2020), 166.

12) 고시용(2020), 147.

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등, 다양한 나라의 기업 대표들의 80%가 인성교육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모두가 자국의 시스템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UN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윤리와 인성의 측면이 인류의 큰 걱정거리인 환경문제, 부정부패, 테러, 소득 불평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3)</sup>

하버드는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대학 중의 하나이다. 하버드대학은 2018년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양교육을 도덕 윤리 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교양교육을 혁신해온 하버드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 교양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는 ‘우주와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것’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탐구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교양교육의 중핵으로 삼았다. 2007년에 이르러서는 탐구방법의 습득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수업을 강의실 밖에 놓인 학생들의 실제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다시 말해 지식탐구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학문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여 삶과 연계시키는 것을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교양교육 전체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였다.<sup>14)</sup> 하버드의 교양교육은 이론과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습득한 지식을 삶에 응용하여 유용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였고, 최근 다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개편하여 인성교육을 최우선 목적으로 일대 전환한 것이다.<sup>15)</sup> 요컨대 하버드는 교육의 무게중심을 지식탐구 교육에서 역량교육, 인성교육으로 이동시켰다. 무게중심이 바뀌었다고 하여 지식탐구 교육과 역량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량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지식을 활용하려면 먼저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다르마 칼리지는 도덕적 지도자, 창조적 지식인, 진취적 도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목적을 21세기 시민적 지성 및 인성과 6대 핵심역량의 함양에 두고 있다. 앞에서 종교의 교육이 아닌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적 교육이 곧 건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교육, 즉 인성교

13) 찰스 파멜 외, 이미소 옮김(2016), 182.

14) 최미리(2017), 272-273.

15) 최미리(2017), 275.

육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성찰 영역에 속하는 불교와 인간과 자아와 명상이 인성교육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은 2015년 인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성의 정의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sup>16)</sup> 글로벌 교육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찰스 파텔은 4차원 미래역량의 하나로 인성역량을 거론하고 있다.<sup>17)</sup> 인성은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의 개념으로 미래 교육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마음챙김을 호기심, 용기, 회복탄력성, 윤리성, 리더쉽과 함께 핵심 인성역량의 첫 번째로 꼽고 있다.<sup>18)</sup>

미국의 학교들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음챙김 훈련을 SEL (Social, Emotional Learning)과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고 있다.<sup>19)</sup> 또한 SEL과 연계되지 않는 인성개발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마음챙김 학교(Mindful School)는 미국 내 50개 주와 60여 개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sup>20)</sup>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구의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명상을 하면 뇌신경 하부조직(neuralsubstrates), 심리적 기능, 그리고 행동 결과에 변화가 생긴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상의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뇌의 영상촬영 기법인 fMRI에 의해 명상실천이 주의와 감정조절 같은 심리적 기능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뇌 세포의 뉴런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도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뇌신경 하부조직과 심리적 기능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명상으로 주의와 부정적 감정들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의 인지적·정의적 능력이 변화하여 정직과 친절 및 공감 등과 같은 바람직한 덕목이 증진된다.<sup>21)</sup>

‘최근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핵심역량은 미래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에는 공감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이해할 경우, 이것

---

16)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17) 찰스 파텔 외, 이미소 옮김(2016), 99.

18) 찰스 파텔 외, 이미소 옮김(2016), 182-184.

19) 이 중 마음챙김 훈련(Mindfulness Training)을 도입하고 있는 SEL프로그램으로 ‘마인드업 프로그램(MindUp Program)’과 ‘강한 아동 및 강한 10대 학습(Strong Kids & Strong Teens Lessons)’ 프로그램이 있다. 고희일(2017), 4.

20) 고희일(2015b), 407.

21) 고희일(2015a), 15.

은 개인의 내적인 능력과 관계적인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22)</sup> 이런 능력들을 역량별로 분류하면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은 대안관계 역량의 범주에 속하고, 문제해결능력은 자기개발관리 역량에 포함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명교과의 핵심역량 요소들은 인성교육의 덕목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성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곧 자명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SEL에 마음챙김명상을 도입하여 핵심역량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핵심역량 교육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 3. 핵심역량 교육과 ‘자아와 명상’ 강좌

#### 1) 핵심역량 기반 교육

‘역량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OECD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연구로 역량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연구하여 ‘핵심역량’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역량을 도입하게 된 발판을 만들었다.<sup>23)</sup> DeSeCo의 후속으로 OECD는 각국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에 OECD Education 2030<sup>24)</sup>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OECD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통적인 관심사로 사회의 변화와 학교교육과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 기후 변화, 인공지능의 개발 등으로 인간 삶의 폭넓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도 유용한지 의문을 가졌다. 그 결과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재개념화하였다.<sup>25)</sup> OECD Education

22) 이철주(2020), 294.

23) 이상은(2018), 53쪽. 그 당시 OECD가 제시한 세 가지 핵심역량은 ‘여러 도구들을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이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 규명 작업은 21세기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지식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미래 학교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3-54쪽

24) 교육 2030’ 프로젝트는 OECD가 2015년부터 2030년에 성인이 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는 프로젝트임.

2030에서 역량을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복잡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정의하였다. 지식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복잡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역량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활용하여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26)</sup>

우리나라는 2007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중심’ 교육을 발표하였고, 2015에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핵심역량’이 반영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으로는 처음으로 6개의 핵심역량을 총론에 명시하였다. 제시된 6개 핵심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이 다.<sup>27)</sup> 이처럼 핵심역량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불충분하며,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정의하여 이를 길러야 한다는 교육의 변화를 시사해 주고 있다.<sup>28)</sup>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은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역량은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려지고 있지만, 성과와 연계되어지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sup>29)</sup> 이숙정 외(2012)에 의하면 “역량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식 및 기술을 실제 주어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량 기반 교육은 이러한 개인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교육”<sup>30)</sup>으로 정의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으며, 학문 탐구를 통한 진리 창조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재의 양성이라는 양측의 팽팽한 갈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1)</sup>

4차산업혁명 시대는 무엇보다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창의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담보하는 역량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역량이 지식을 대체하여 새로운 교육적 개념으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한편 역량교육이 직업교육이고 행동주의적 교육이라는

25) 최수진(2019), 50.

26) 허주 외(2020), 22.

27) 이상은(2018), 29-30.

28) 진미석(2016), 9.

29) 김대중·김소영(2017), 30.

30) 이숙정·이수정(2012), 22.

31) 박만정(2008), 191.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0년부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주요 지표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요구하여왔기 때문에 대학은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sup>32)</sup>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 관련된 최초의 정부 지원사업인 ACE사업의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기술하고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모델화하고,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계획과 학생들의 핵심역량의 향상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ACE사업은 여러 대학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는 기폭제가 되었다.<sup>33)</sup>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을 통하여 대학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통해 핵심역량과 전공능력을 제고하도록 주문하였다. 교육부는 교양교육에서 제고해야 할 핵심역량을 ‘각 대학이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으로 정의하였고, 전공교육에서는 전공능력을 ‘각 단과대학 또는 계열, 학과의 관련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정성적 진단평가를 받게 되었다.<sup>34)</sup>

## 2) 핵심역량 기반 ‘자아와 명상’ 강좌와 문제점

불교적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동국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화쟁형인재이다. 화쟁형인재는 4차산업혁명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인재와 동일한 맥락에서 양성되는 인재유형이지만 동국대의 건학과 교육이념이 반영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재상이다. 화쟁형인재는 신라 원효의 화쟁적 실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교과과정에는 불교적 건학과 교육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다르마 칼리지의 교양교육은 화쟁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함양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으며, 평가시스템도 과목별 배정된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교수성과와 학습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교양교육의 6대 핵심역량은 대인관계, 자기개

32) 백승수(2020), 102-103. 정부가 핵심역량 기반 교육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생핵심역량진단지원사업(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등 크게 3가지이다. 백승수(2020: 104-114).

33) 백승수(2020), 106.

34) 백승수(2020), 104-108.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발 및 관리, 의사소통, 글로벌, 정보기술활용, 창의융합이며, 각 역량은 각각 4가지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역량은 대개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며, 게다가 동일한 영역이라도 하위역량은 대학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sup>35)</sup>

선명상 중심의 자명 교과는 6대 핵심역량 중 대인관계와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과 연계되어 있다. 자명 교과는 역량기반 교육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대인관계 역량과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강의를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각 역량의 학습성과와 하위역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자명 교과와 핵심역량과 구성요소

핵심역량	학습성과 및 구성요소	
대인관계 역량	①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 타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이해와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②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 능력 -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 팀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	③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 학습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④ 진로 개발과 실행 능력 -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비전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과 외부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위와 같이 2가지 영역의 각각 하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운영하고,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학습목표가 된다. 교수자는 위와 같이 설계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르쳤는지 스스로 평가하고(5점 척도), 학습자들은 강의를 통해 이러한 능력들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설문에 대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5점

35) K-CESA의 6대 역량은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종합적 사고, 자기관리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이다. 성균관대는 소통역량, 인문역량, 학문역량, 글로벌역량, 창의역량, 리더역량을 6가지 역량으로 선정하고 교양교육과정을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구조화하였다.(최상덕 2016: 12). K-CESA는 OECD 등의 고등교육 성과측정 프로젝트 추진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대학생의 핵심역량 측정도구이다.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대학교육과정 개발을 유도하고, 대학생 개인의 핵심역량 정도를 진단하여 대학생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K-CESA를 도입되었다. 백승수(2020: 107).



척도).

졸업 필수과목인 자명1과 자명2는 교강사로 구성된 교강사모임이 중심이 되어 통일된 수업규칙과 성적평가 기준, 통일교안, 주차 별 강의 내용 등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수업구성은 선명상에 관한 이론 강의(50%)와 명상 실습(30%), 그 외 토론(20%)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자아에 대한 이해와 명상법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진실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명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전을 전거로 한 초기불교 명상법과 대승선에 기반한 명상법과 응용명상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기불교 명상법은 호흡명상, 걷기명상, 몸관찰 명상, 마음관찰 명상의 사띠빠타나 수행법과, 자비명상, 이완명상, 행복명상, 감사명상이 있다. 대승선에 기반한 명상법과 응용명상법은 간화선, 관상명상, 절명상, 음악명상, 염불명상, 차명상 등이 있다.

이런 명상법들의 기초가 되고, 거의 모든 명상법의 기초로 활용되는 것은 호흡 알아차림, 몸의 동작과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중력을 길러주는 호흡명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법이다. 또한 붓다가 깨달은 수행법이고 사마타와 위빠사나 모두를 적용할 수 있고, 아울러 탁월한 심신치유 기능뿐만 아니라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수행법이다.<sup>36)</sup> 『Mahāsatipatthāna Sutta(대념처경)』에 의하면 사띠빠타나 수행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4가지 사띠빠타나이다.”<sup>37)</sup>

마음챙김-알아차림은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 이라는 4가지 사띠빠타나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아와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를 길러준다. 큰 목표이든 작은 목표이든 누구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크고 작은 시련이 따르게 마련이다. 위와 같이 사띠빠타나는 궁극적 행복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지만, 수행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치유도 동반되는 것이다. 명상의 치유효과는 오래 동안 서양의 뇌과학과 심리학 등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업 활동에 사띠빠타나를 활용하면 괴로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다.

36) 안병희(2012), 649-650.

37) 각목 율김(2006), 『대념처경』(D22), 492-493.

2018년에는 교강사를 중심으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아와 명상 워크북<sup>38)</sup>을 편찬하였고, 2019년부터 모든 수업에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2019년 2학기 수강생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자아와 명상 수업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유익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는 비율이 54, 8%로 나타났으며, 한편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포함)는 12.8%로 나타났다.<sup>39)</sup>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보아진다. 수업에 통일된 자아와 명상 워크북(1, 2)을 활용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은영(2020)의 분석에서도 자명교과가 통일된 수업규칙, 강의방식 등과, 워크북 도입 이후 개별수업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0)</sup>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수강생들의 핵심역량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자명 교과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의 교재<sup>41)</sup>는 경전 전거에 기반한 명상법과 응용 명상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명 교과와 핵심역량과 연계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본고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문제이다. 현재 평가시스템만 핵심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구조화 있을 뿐 자명 교과와 내용, 즉 위의 선명상법들이 어떻게 핵심역량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자료,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교수자는 핵심역량의 제고와 연계하여 강의를 설계해야 하고,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해서 수업과 연계된 핵심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수자가 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교육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연계가 없다면 핵심역량 교육은 형식적인 이름에 불과하다. 역량기반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공과 교양과 비교과 모두를 핵심역량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전공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sup>42)</sup>

한편 학생들은 전공교육은 중시하고 교양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핵심역량은 전공이나 직업 선택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교양교육을 핵심역량과 연계 시킴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다.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의 문제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대학교육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버드는 이미 2009년에 지식 중심의 교양교육에

38)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2019).

39) 2019년 2학기 동국대 선학과 교강사 워크샵 자료 참조.

40) 김은영(2020), 144.

4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42) 김대중, 김소영(2017), 42.

서 활용 중심의 역량교육으로 혁신하였다.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을 도입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편승한 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대학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대학이라 할지라도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대학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교재의 명상법이 지혜개발에 편중되어 있고, 자비개발은 적다는 것이다. 불교 정신을 상징하는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 날개에 비유될 정도로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이다. 지혜와 자비는 정진을 포함하여 동국대의 교훈이기도 하다. 지혜가 창조적인 능력이라면 자비는 도덕적인 능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가 교육하고자 하는 화쟁형인재는 창조적이고 도덕적이며, 도전적인 인재이기도 하다. 아무리 창조적인 인재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웃과 사회에 공헌은커녕 해를 끼칠 것이다. 자비는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의 토대를 이룬다. 따라서 자비를 개발하는 것은 지혜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계는 자비의 종지를 기르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래부터 자비가 강조되어왔지만 선명상으로 자비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다. 교재 내용에는 다양한 선명상법들이 있지만, 이들 중 자비를 함양할 수 있는 수행법은 자비명상이 유일하다. 초기불교나 대승불교 기반 선명상 수행을 하면 지혜와 함께 자비도 개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데이터에 의하면 마음챙김 명상으로 영향을 받는 뇌회로는 자비를 관장하는 부분과 다르며 자비를 기를 수 없고, 자비명상이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sup>43)</sup> 자명 수업의 내용에 자비와 자비를 개발하는 선명상법이 강조되어야 한다.

#### 4. 핵심역량 기반 '자아와 명상' 강좌의 개선방안

SEE Learning<sup>44)</sup>은 SEL(사회·정서·학습)과 여타 감성지능 이론과 교수학습방법에 기반해 에모리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자비기반 마음챙김 명상법과 사회·정서·인성교육이 통합된 교육

43) 다니엘 골먼 외, 민지현 옮김(2018), 127.

44) SEE Learning에 관한 내용은 Emory University의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2019)가 발행한 *The SEE Learning COMPANION: SOCIAL, EMOTIONAL & ETHICAL LEARNING*를 참고하였다.

프로그램이다. 본 장에서는 선명상 강좌의 개선방안으로 SEE Learning과 골먼의 감성지능 이론을 참고하여 선명상이 어떻게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SEE Learning은 보편적인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 초, 중, 고를 비롯하여 대학과 전문적 교육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SEL은 다음의 다섯 가지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SEL은 아동과 성인들이 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자기인식), ② 긍정적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하는데(자기관리), ③ 타인과 공감하고 표현하는데(사회적 인식), ④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관계기술), 그리고 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책임 있는 의사결정)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 또는 기법을 획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게 하는 과정이다.<sup>45)</sup>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마음챙김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마음챙김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SEL프로그램은 집중된 마음챙김적 호흡, 정서적 알아차림, 자비명상, 마음챙김 듣기, 알아차림 등으로 여러 활동을 결합하여 위의 다섯 가지 역량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sup>46)</sup>.

SEE Learning은 위의 5가지 역량을 포함하여 자비를 교육모형의 근간에 두고, 자기자비, 타인 자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깨달음, 지역사회 참여와 국제적 참여라는 역량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① 자기인식과 더불어 (주의)집중이 강조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성을 자비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비와 알아차림의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인성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타인과, 더 나아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의미한다. SEE Learning은 마음챙김-알아차림 명상을 중심으로 자비개발, 인성개발, 역량함양 교육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교육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위의 ① 자기인식과 ② 자기관리는 자명 교과와 자기개발 관리 역량에 해당하고, ③ 사회적 인식과 ④ 관계기술, 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 덕목과 일치한다. SEL이나 SEE Learning, 자명 교과는 모두 내적 역량과 외적 관계역량을 발달시킨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이들 중 self-awareness의 번역인 자기인식은 골먼에 의하면 나머지 역량을 함양 또는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는 메타무드, 메타인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내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자기반성적 인식 속에서 정서를 포함하여 경험 그 자체를 관찰하고 조사’

45) <https://casel.org/> ; 고희일(2017), 3.

46) 고희일(2017), 3-4. Lawlor(2016), 재인용.

하며, 또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과 감정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자기성찰을 유지하는 중립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sup>47)</sup> 골먼의 자기인식은 사띠빠타나의 사띠(마음챙김-알아차림)를 심리학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존 카밧진의 마인드풀리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sup>48)</sup> SEE Learning의 집중·자기인식 역량도 골먼의 정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인식에 포함된 주의집중과 알아차림은 지혜개발의 토대이며 나아가 인지능력과 정서능력 개발 등 교육과 역량 함양의 기초가 된다. “순수한 주의집중이란 ....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 신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여태껏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던 마음을 개발한다. 이러한 종류의 주의집중은 그 자체로서 치유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불교심리학의 기본적인 교의이다.”<sup>49)</sup> 자기인식은 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역량의 토대가 되는 소통, 공감, 배려, 유대감 등의 원천이 된다.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 감정과 느낌을 조절할 수 있어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감은 타자의 정서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비이다. 특히 명상수행은 공감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의도에 관계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50)</sup> 이런 토대가 있어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서적 유대가 가능해진다. 자신의 감정을 감지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공감능력이 좋아지면 타인과의 관계능력도 향상된다.

사띠빠타나 수행에는 내적 관찰과 외적 관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띠빠타나 수행으로 내면을 관찰하여 내적 역량을 기르고, 이것을 외적 관찰을 통해서 타인에게 적용하여 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머문다. (... 중략 ...).<sup>51)</sup>

47) 다니엘 골먼, 한창호 역(2008), 99.

48) 차드 멩 탄, 권오열 옮김(2015), 133.

49) 마크 엡스타인, 전현수·김성철 옮김(2015), 146.

50) Christopher K. Germer 외, 서광스님·김나연 옮김(2014), 29-294.

51) 각목 옮김(2006), 『대념처경(D22)』, 499-500.

안으로 나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내적 관찰과 밖으로 타인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외적 관찰은 관찰대상만 몸, 느낌, 마음, 법(심리현상)으로 바뀔 뿐 4가지 사띠빠타나 수행에서 반복되는 정형구이다. 여기서 외적 관찰은 타인의 호흡, 움직임, 느낌, 마음, 심리현상 등의 관찰을 의미한다.<sup>52)</sup> 내적 관찰은 자신의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을 관찰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자신의 인식능력과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외적 관찰은 타인의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을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용한 인식능력과 조절 능력을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러므로 내적 관찰은 자기개발 관리 역량을 발달시키고, 외적 관찰은 내적 관찰의 심리적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불교정신의 바탕인 지혜와 자비는 인성과 자기개발 관리 및 대인관계 역량의 근간을 이루는 덕목이다. 이런 덕목은 불교수행에서 반드시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덕목으로 각각 인지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지혜는 법의 고유성질을 꿰뚫어 통찰하는 능력, 즉 통찰지를 말하며, 주로 삼매로 계발된다.<sup>53)</sup> 사띠빠타나 수행이나 간화선 등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으로 집중과 삼매를 닦아 계발할 수 있다. 집중과 알아차림으로 개발된 지혜는 정서의 이해와 조절능력을 높이고 내적 관찰과 외적 관찰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위인지, 즉 메타인지<sup>54)</sup>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혜개발은 자기개발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비는 자비희사[자애, 연민, 기쁨, 평온]의 자애와 연민이 합쳐진 개념이다. 자비명상으로 길러지는 긍정적인 심성들을 통칭하여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불려진다. “자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비는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모든 중생에게 제한 없이 확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sup>55)</sup> 스텐퍼드대 자비개발 훈련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티베트 불교학자 톱텐진파는 자비를,

“다른 사람이 고통과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염려의 마음이며,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자비는 저항, 두려움, 혐오 대신, 이해, 인내, 친절로 고통에 대응하는 것이다. ... 자비는 공감의 느낌을 친절하고 너그러운 행위나 이타적인 마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sup>56)</sup>

52) 각목(2020), 127. ; Analayo, 이필원 외 옮김(2019)), 110-117.

53) 각목 466.

54) 제임스 킹스랜드, 구승준 옮김(2017), 315-335.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안와전두피질에 성냥갑 크기로 존재하는 브로드만 영역 10이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 영역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초연하게 바라보는 메타인지에 관여한다. 320쪽.

55) 권수아(2017), 105, 재인용.

초기불교에서 자비를 기르기 위한 자비명상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자신에 대해 거듭거듭 닦아야 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혹은 내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를! 이라고.”<sup>57)</sup>

위와 같이 초기불교에서는 자기자비를 닦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서 좋아하는 사람(존경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원한 맺힌 사람, 점차 전 우주로 자비심을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하여 자비를 계발한다.

SEE Learning에서 “자비는 친절, 공감, 행복과 고통에 대해 관심과 염려를 보이며, 자기자신, 타인, 그리고 인류 전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비는 부족함, 시련, 실패 경험 등에 대한 비난 대신 자기를 돌보는 것, 특히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누구든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인내, 노력 등의 시련을 격게 마련이다. 자신의 정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인식, 태도 및 상황의 맥락 안에서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동정, 관대한 자기만족, 또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내면에 일어났던 감정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경험한 감정들이 자신의 욕구나 기대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돌봄을 알아차림과 함께 실천한다. 이런 맥락 안에서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한 경험을 비난하는 대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더욱 현실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자비는 자신감과 회복탄력성, 용기의 원천이 된다.<sup>58)</sup>

한편 타인자비는 자신에게 적용한 자비를 타인에게 적용하여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생각, 느낌, 감정을 맥락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림한다. 다른 사람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마땅히 비판이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 어떤 욕구나 감정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편견, 비판이나 분노의 감정보다는 공감과 자비가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상태와 타인의 마음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기자비와 타인자비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비가 타인에게 확장되면 타인과 유대감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협력심이 향상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과 공

56)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2019), 15.

57) 대림 스님 율김(2011), 『청정도론』 제2권, 140.

58)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2019), 34-37.

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이 사람다운 성품, 즉 인성이다. 자비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다. 자비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개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한다.<sup>59)</sup>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자타를 위한 자비의 개발은 인성개발과 공통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SEE Learning은 자비와 알아차림으로 정서 이해력을 키우는 것을 통해 인성적 발달을 도모한다.

이상과 같이 선명상 강좌의 개선방안으로 SEE Learning과 골먼의 감성지능 이론을 참고하여 선명상방법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사띠빠타나의 내적 관찰과 사띠빠타나의 영향을 받은 감성지능 이론과 SEE Learning의 자기인식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인성과 핵심역량 함양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선명상 강좌의 개선방안으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자기개발 및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내용을 공통 교재 또는 강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전기반 선명상이론과 실습은 물론이고 연계된 핵심역량을 학습목표로 설정하여 학생들이 선명상과 그 체험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목표가 명확해질 수 있다. 나아가서는 고전 속의 선명상을 과학적인 현대 이론들과 융합함으로써 선명상은 종교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로 재인식될 수 있다. 또한 전공을 중시하고 비교적 종교나 인문학에 관심 적은 디지털 세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핵심역량 교육은 대학의 지식 중심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동국대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회변화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화재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자명은 교양 6대 핵심역량 중 자기개발 및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의 함양과 연계된 교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선명상 강좌의 핵심역량에 주목하여 자명 교과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강의 내용(교재) 구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자명 교과의 전통적인 역할인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측

---

59)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2019), 53-60.



면에서 선명상 강좌의 교육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교양’은 본래 마음의 경작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마음을 가꾸다’, ‘마음을 닦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선명상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의 계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종교교양은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특정한 종교의 교육이 아닌, 보편적이고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성, 즉 심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교양교육이 될 수 있다. 종교적 교육은 참된 인간상의 확립과 올바른 인생관의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명상 강좌는 종교색을 강조하기보다는 경전에 기반한 선명상 이론 강의와 실습을 통해 참된 인간상의 확립과 올바른 인생관의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지식 중심에서 지식의 활용 역량, 도덕 윤리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교양교육을 혁신한 하버드의 사례는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성은 교육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으로 이해되며, 국내외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인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변화는 뇌신경망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국내 인성교육에서도 미래의 삶을 위한 핵심역량이 강조되면서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갈등해결능력 등과 같은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들은 인성교육의 덕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음챙김 명상과 인성교육, 핵심역량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고 명상이 인성과 역량의 함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역량 기반 교육은 전공과 교양 등 모든 교과과정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운영됨을 의미한다. 선명상 강좌는 화쟁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런 2가지 영역의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강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감성지능 이론과 SEE Learning을 참고하여 선명상을 기반으로 인성교육, 핵심역량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SEE Learning은 자비와 마음챙김-알아차림을 중심으로 SEL과 감성지능 이론에 기반해 예모리대학에서 개발된 교육모델이다. SEE Learning과 선명상 교과역량은 공통적으로 알아차림 명상으로 먼저 내면을 관찰하여 내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적인 관계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적인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는 외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없다. 사띠빠타나 수행의 내적 관찰은 자신의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을 관찰하고 지혜를 개발하여 자신의 인식 능력과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① 자기인식과 ② 자기관리), 외적 관찰은 타인의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을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용한 인식능력과 조절 능력을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③ 사회적 인식, ④ 관계기술, ⑤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러므로 내적 관찰은 자기개발 관리 역량을 발달시키고, 외적 관찰은 내적 관찰의 심리적 조절 능력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① 자기인식은 마음챙김-알아차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으며, 메타인지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인지능력과 정서능력 개발 등 학습과 역량함양의 기초가 되며, 나머지 역량을 함양 또는 발휘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띠빠타나의 내적관찰 능력이 핵심역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SEE Learning은 마음챙김-알아차림을 중심으로 자기개발과 인성개발, 핵심역량 개발이 모두 통합된 모델이다. 자비는 이 모델의 근간을 이루며 알아차림과 함께 자기자비와 타인자비를 실천하여 자기개발 및 관리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기른다. SEE Learning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을 돌보되, 보편적 경험으로 보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돌봄을 의미한다. 자기자비는 회복탄력성과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타인자비는 자신에게 적용한 방식처럼 타인에게도 집중하여 자비를 적용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돌봄을 적용하면, 편견이나 비판 대신 공감이 일어나고 유대감이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협업도 가능해진다. 이런 면에서 자비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인 사람다운 성품, 즉 인성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비와 인성은 모두 후천적 학습으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명상 교양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선방안으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자기개발 및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내용을 공통교재 또는 강의 내용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전기반 선명상 이론과 실습은 물론이고 연계된 핵심역량을 학습목표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선명상과 그 체험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목표가 명확해질 수 있다. 나아가서는 고전 속의 선명상을 과학적인 현대 이론들과 융합함으로써 선명상은 종교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로 재인식될 수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 선명상을 기반으로 핵심역량의 함양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데 머물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논구하지 못하였다. 선명상에 기반한 자기개발 및 관리와 대인관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향후 더욱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한 연구자료가 축적되어야 강의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의 역량 향상은 곧 대학의 경쟁력,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 각목 스님 율김(2010), 『디가니까야』 제2권, 『대념처경』,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대림 스님 율김(2011), 『청정도론』 제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전재성 역(2014), 『울장대품 제1장 크나큰 다발』(Mv),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2. 단행본

- 각목 스님(2013), 『초기불교 이해』,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다니엘 골먼, 민지현 율김(2018), 『공감』, 파주: 21세기북스.  
다니엘 골먼, 한창호 율김(2008), 『EQ 감성지능』, 서울: 웅진씽크빅.  
동국대학교 자아와 명상 교재편찬위원회(2019), 『자아와 명상 워크북(1, 2)』, 서울: 아름다운 인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2021), 『대학생을 위한 명상실습 입문(1, 2)』, 서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마크 엡스타인, 전현수·김성철 율김(2015), 『붓다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백승수(2020),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방향』, 『교양교육의 지평 : 재점과 과제』, 파주 : 양서원.  
Bernie Trilling & Charles Fadel,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21세기 핵심역량-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서울 : 학지사.  
Analayo, 이필원·강향숙·류현정 율김(2019), 『Satipatthana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 수행』,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제임스 킹스랜드, 구승준 율김(2017),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조계종 출판사. 150-153.  
Christopher K. Germer & Ronald D. Siegel, 서광스님·김나연 율김(2014),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서울: 학지사.  
찰스파델, 마야 비알릭, 버니 트릴링, 이미소 율김(2016),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 21세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서울 : 새로운 봄.  
차드 멩 탄, 권오열 율김(2012),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알키.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and Compassion-Based Ethics(2019), *The SEE Learning COMPANION : SOCIAL, EMOTIONL & ETHICAL LEARNING*, Emory University.

3. 논문

- 고시용(2020), 「교양교육으로서 원불교의 종교교육 -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宗教教育學研究』, 한국종교교육학회.
- 고형일(2015a), 「미국의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과 한국교육에의 함의」, 『한국교육』 권42, 한국교육개발원.
- 고형일(2015b), 「마음챙김의 심리적 단계와 인성교육」, 『교육치료연구』 권7, 한국교육치료학회.
- 고형일(2017),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마음챙김 훈련프로그램의 한계점과 발전방향」, 『교육연구』 제39집,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구재선 서은국(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권29, 한국심리학회.
- 김대중, 김소영(2017),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과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핵심역량교육연구』 권1,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 남창우 박영희, 송지희(2016), 「대학생의 계열 및 학년별 비인지적 핵심역량 차이 분석 - 자기관리 역량 및 대인관계 역량을 중심으로」, 『사고개발』 권12, 대한사고개발학회
- 김은영(2020), 「불교계 종립대학의 종교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국대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宗教教育學研究』, 한국종교교육학회.
- 김정모 전미애(2014), 「마음챙김에 기초한 교양강좌가 대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권33, 한국심리학회.
- 묘주(1993), 「동국대학교 건학이념 구현 방안」, 『석림』 제27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 박미옥, 고진호(2015),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
- 박선영(2001), 「한국의 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 박병기(2013), 「불교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박선영(1998), 「釋尊의 傳道宣言에 나타난 教育思想 試論」, 석림 제32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 손동현(2020),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학」, 『교양기초교육연구』 권1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 안병희(일증)(2012), 「호흡관 수행과 심신치유 적용 - 상좌불교 전통의 호흡관과 MBS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32호, 불교학연구회.
- 이숙정, 이수정(2012),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한국교양교육학회.
- 이철주(2020), 「실천지향의 인성 개념 탐구」, 한국윤리교육학회, 『유덕한 시민을 위한 인성교육론』, 교육과학사.
- 정위연(2019),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불교교양강좌 운영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5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 조기룡(2019), 「불교종립대학의 불교기반 인성교육 교과과정 개선 방향」, 『불교학보』 제8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진미석(2016), 「핵심역량은 교육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는가?」, 『핵심역량교육연구』 권1,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최미리(2017),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 사례 연구: 2016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7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4. 연구보고서

이상은(2018),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최수진(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허주 외(2020),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한국교육개발원.

# 「불교종립대학의 ‘자아와 명상’ 교양강좌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논평

진관스님(전효진)\_동국대학교 강사

시대의 과제를 위해 연구자분들은 불교중흥을 위한 종립대학 선·명상 강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건학이념의 구현을 연계하여 강좌의 역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최신 문광부 조사를 첨부하며 상대적으로 불교계 종립대학이 적음과 20대의 불교 선호도가 대폭 낮은 관계를 서술하였다. 부가하여 동 조사의 종교 조사와 OECD 관련 등의 세계 교육 변천 분석을 포함해 인재양성 요람인 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담당하는 교육적 역할은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다고 밝혔다. 전도선언을 인용해 불교의 자비와 연결한 점은 인간은 물론 三界皆苦를 편안케 하리라는 뜻임에 크게 공감한다. 그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작금에 노력하고자 함도 자비심의 발현일 것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종교학적 틀에서 자아와 명상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인성교육으로 가름하였다. 근거로는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소재 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되, 그중 마음챙김을 주 예시로 들었다. 연구 중간에 환경과 부정부패 및 테러나 소득 불평등과 같은 현대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학의 해당 연령층의 관심도를 고려할 때 더욱 부연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인성교육에서 핵심역량을 연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별도 주제로 집약한 연구로 진행될만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 장은 인성교육의 주요소로 부각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에 역점을 두어 논증하고 있다. 앞장에서 예고한 ‘공감·대인관계·자기관리·소통·갈등해결·문제해결의 능력’에 대해 ODCE 정의인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복잡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개하며 이를 국내 교육 관련 부처 명시 6개 역량에 맞추고, 최근 정부 사업까지 부연해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을 위한 교육이라 설명하였다. 이렇듯 다소 광범위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회통하여 분석하려 한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한 논지를 여러 선행연구의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활용해 '현대사회에서 핵심 역량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여주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선·명상 강좌의 문제점 분석에 앞서 강좌 소개와 중점 학습 요소들을 명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년도 2학기 조사결과의 긍정적 평가를 들고 있으나, 연구자의 분석처럼 소개한 강의 요소에 대한 만족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초기 및 대승불교 기반 명상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라 보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라 분석하였다. 대학이라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한 문제는 '지혜에 편중된 교재'라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용기 낸 성찰을 해주었다.

본론의 마지막 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방안으로 SEE Learning을 활용을 제시하며, 지혜의 측면에서는 samatha와 vipassanā를 통한 명상법 중심의 메타인지 향상을 들었다. 자비의 측면에서는 四無量心을 들어 SEE Learning의 감성지능을 상대시켜 대인관계 역량 강화로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논문은 Satipaṭṭhāna의 내적 관찰과 그 영향을 받은 감성지능 및 SEE Learning의 자기인식을 선·명상 강좌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앞의 목표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제시하였다. 이밖에 고전의 활용·과학적 융합 등을 짧게 덧붙인 점에 연구자분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해당 강의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는 독·청자를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 2019년도 2학기 조사결과를 통해 역량 향상과의 직접적 관계는 알 수 없다는 분석에 동의한다. 이 부분은 별도 학기별 강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의 조사가 동일 군의 비교 조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해당 교과 운영에 있어서 추후 계획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교재와 수업 방식의 통합이 상향 평준된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에 있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

##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

시면서 교재와 수업 방식이 같아도 본 학회 의제인 포교 성과의 각 결과는 다를 것이라 추측된다. 교재와 교안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반응 양상이 다르다면 그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되는지 의견을 청한다.

- 제시된 <표 3-2>에 교과 목표 핵심역량의 교육적 부재를 문제로 들며 SEL이나 SEE Learning에 착안해 문제점을 해결하려 착안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SEE Learning에서 다루는 마음챙김이나 알아차림의 영역은 기존 자아와 명상의 교과에 존재한다. SEE Learning에서도 여러 역량을 목표로 두었을 뿐 실제 목표 역량의 성장에 가시화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부연이 필요하다. 이에 추가 자료를 보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실제 효과를 역점에 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욱 많이 양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교과는 15강 두 학기 30강의 30시수로 구성되었다. 30시간 만에 <표 3-2>에서 목표로 한 역량들은 다소 과하거나 분리된 지향으로도 보인다.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학습성과 및 구성요소에 대한 근원적 재고와 교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청한다.

많은 자료 조사와 분석으로 하여금 자가당착에 들지 않고 엄격한 자조와 분석을 보여주신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성찰은 연구자와 수행자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면모인 동시에, 불교의 중흥을 기조로 노력하고 있는 현 한국 불교계에 방법론과 실천론의 예시를 보여주는 역할모델일 것이라 예상된다. 교계의 합심에 나아가 그 마음을 현실에 이루고자 한 학회 측의 실천과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함께 佛恩을 갚고자 하는 동체로서 매우 감사하다. 이러한 논지가 論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닿아, 불교중흥을 위한 종학 및 포교 활성화의 柱礎가 되기를 至心으로 誓願한다.